

목 차

- I. 머리말
- II. 송국리형 취락의 입지
 - 1. 자연지리적 입지
 - 2. 대내외적 입지
- III. 송국리형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 1. 주거지의 변화양상
 - 2.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 IV. 송국리문화의 수용
 - 1. 송국리문화의 유입
 - 2. 송국리문화의 수용
- V. 송국리문화의 전개
 - 1. 송국리문화의 전개
 - 2. 송국리문화의 소멸
- VI. 맺음말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김 경 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海上中에 형성된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양상이 한반도는 물론 남해안지역과도 항상 괴리된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제주의 신석기시대 이후 출현하는 무문토기는 그 유사성이 확인되어도 한반도와 달리 매우 큰 시기폭을 나타내고 있다(이청규 1995). 이에 반해 신석기시대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지역의 고고학적 물질문화에 대해 동시기성을 상정한 점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오연숙 2004; 이영덕 2004; 고재원 2009).

아무튼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속에서 신석기 단계의 주민집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 물질문화의 유입과 전환 또는 변화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고고학에서 송국리문화는 청동기시대의 한 시기를 획정하는 중요한 물질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송국리형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출토유물의 조합은 송국리유형으로 설정되어 청동기시대 후기(안재호 2006)의 문화특질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송국리문화의 출현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안재호 1992; 송만영 1995; 이홍중 1996; 우정연 2002; 이진민 2004; 김장석 2006; 나건주 2009). 또한 호서지역과 호남지방 그리고 대구 이남의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유형으로 고착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구주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제주도과 강원지역에서도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문화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가 처음 조사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삼양동유적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화순리, 예래동유적 등 대규모 취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부분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취락의 성격은 물론이고 제주지역에 유입된 송국리문화의 다양한 주거구조와 변화양상 및 유물조합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편이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편년문제 등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 역

시 산적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송국리문화가 제주지역에 수용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단계의 주거구조 및 유물조합상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그 전개 및 소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송국리형 취락의 입지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남해안과 마주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제주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남해안 지역과 마주보는 직선상의 시인거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이래 한반도 선진문물의 유입 내지는 다양한 교류루트는 결국 양 지역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지역의 고고학적인 문화의 변천과정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남해안 지역 특히 전남 남해안지역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와의 지리적 입장을 고려하여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의 입지환경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지리적 입지

제주도의 선사시대 취락조성에 있어서 입지의 선택에 관한 문제는 생활 혹은 생업조건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비중있는 입지조건은 물과 식량자원이다. 따라서 정주유적의 입지는 1차적으로 용수조건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조건의 유리함은 농경과 함께 토기원료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게 된다(이청규 1995, 200~201쪽).

먼저 물과 관련된 제주도의 용천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용암류 경계면이나 말단부에서 용출하고 있으며 용암류의 가장자리인 해안선을 따라 용천수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표1)을 참고하면 제주도의 용천수는 해발 200m 이하인 저지대 용천수가 전체의 92.3%(841개소)에 해당하고 있으며 해발 100m 이하의 용천수는 771개소(84.6%)에 해당한다(박원배 2006, 160~164쪽).

또한 해안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의 일일 용출량을 살펴보면 5,000톤/일 이상되는 용천수는 40개소 가운데 4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발 100m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발 100m 미만인 저지대의 평탄대지 및 저구릉지가 비교적 용수조건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가 있다.

〈표1〉 제주도의 지대별 용천수 분포현황(박원배 2006에서 인용)

지역 \ 지대	저지대 (해발 200m 이하)	중산간지대 (해발 200~600m)	고지대 (해발 600m 이상)	합계
제주시	489(53.7%)	37(4.1%)	14(1.5%)	540(59.3%)
서귀포시	352(38.6%)	12(1.3%)	7(0.8%)	371(40.7%)
합 계	841(92.3%)	49(5.4%)	21(2.3%)	9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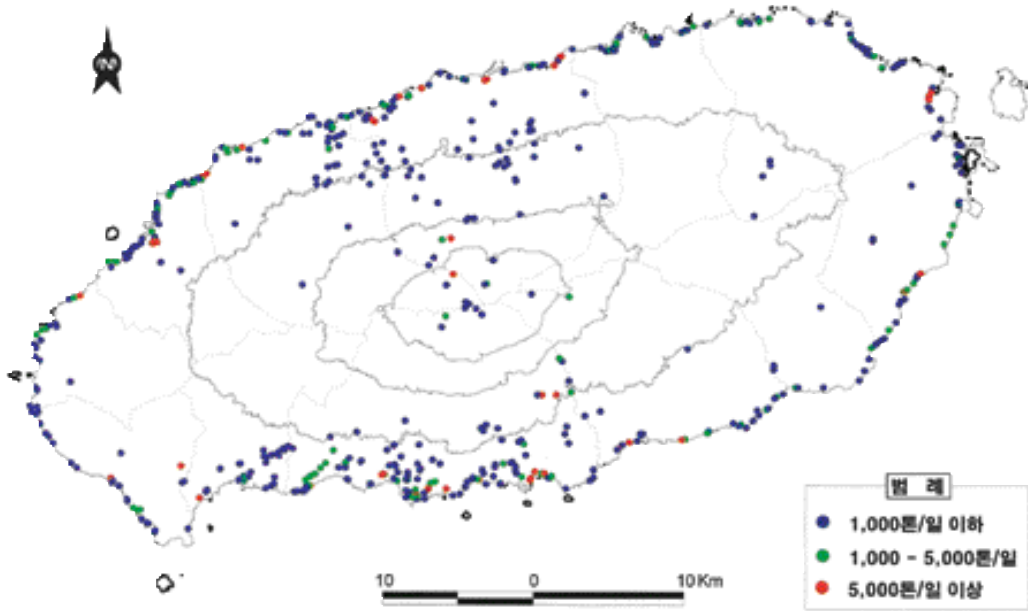
반면에 제주도는 토양조건이 불리하여 수전과 같은 농경이 어렵고 전작지대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전작지대 역시 토양조건이 양호한 곳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이청규 1995, 201쪽).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토양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토양개황도가 작성된다¹⁾. 그 결과 동귀-구엄-용흥토양군은 서북부~서남부에 이르는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해당하고 있다(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즉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서북부~서남부 일대 해발 100m 미만의 평탄대지상에는 대체로 동귀-구엄-용흥토양군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김경주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정주취락과 관련된 입지조건으로 용천수와 토양조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용천수의 경우 해발 100m 미만의 해안저지대를 중심으로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도면1)을 참고하면 비교적 용천수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5,000톤/일 내외의 용출량을 보이는 용천수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으로는 ①삼양동·용담동·외도동 일대 ②곽지리·동명리·신창리 일대 ③일과리·사계리 일대 ④회순리·예래동 일대 ⑤대포동·강정동·서귀동 일대 ⑥하례리·신례리 일대 ⑦신천리·신평리 일대 ⑧종달리 일대 등 총 8개 지역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8개의 용천수 분포지역군에는 대부분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용수조건이 취락조성의 중요한 입지적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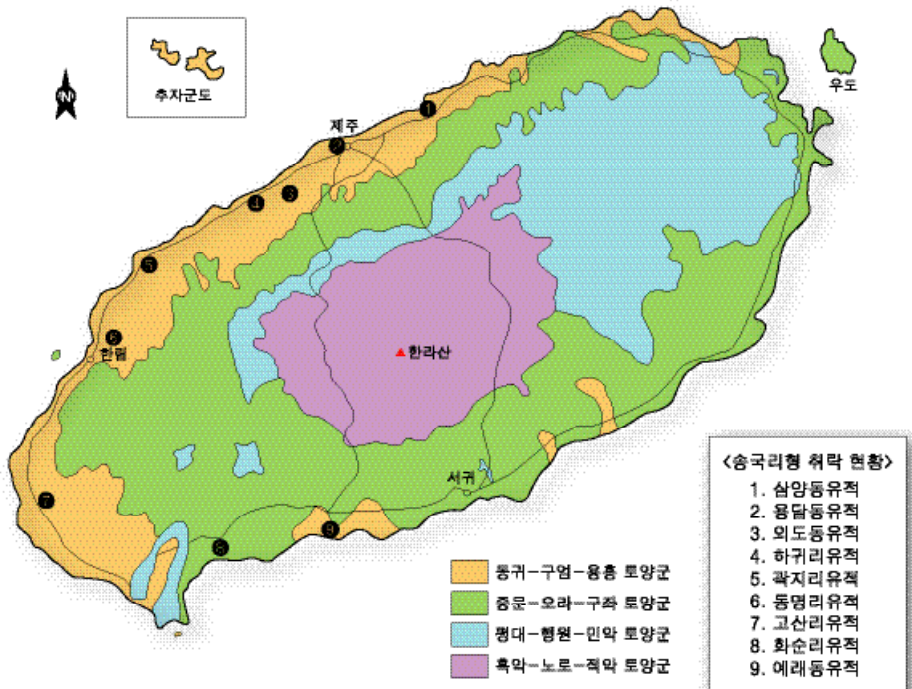
특히 도면1)~도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조사된 송국리형 취락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술한 용천수 및 토양조건이 분포하는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송국리형 취락이 조성된 곳은 대체로 해안에 인접한 평탄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단의 주변 지역으로는 하천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하천(영구유수천 및 건천 포함)은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발 100m 미만의 동귀-구엄-용흥토양군 분포지역과 5,000톤/일 이상의 용출량을 보이는 용천수 분포지역이 중복되는 곳을 보면 크게 ①삼양동·용담동·외도동 일대 ②곽지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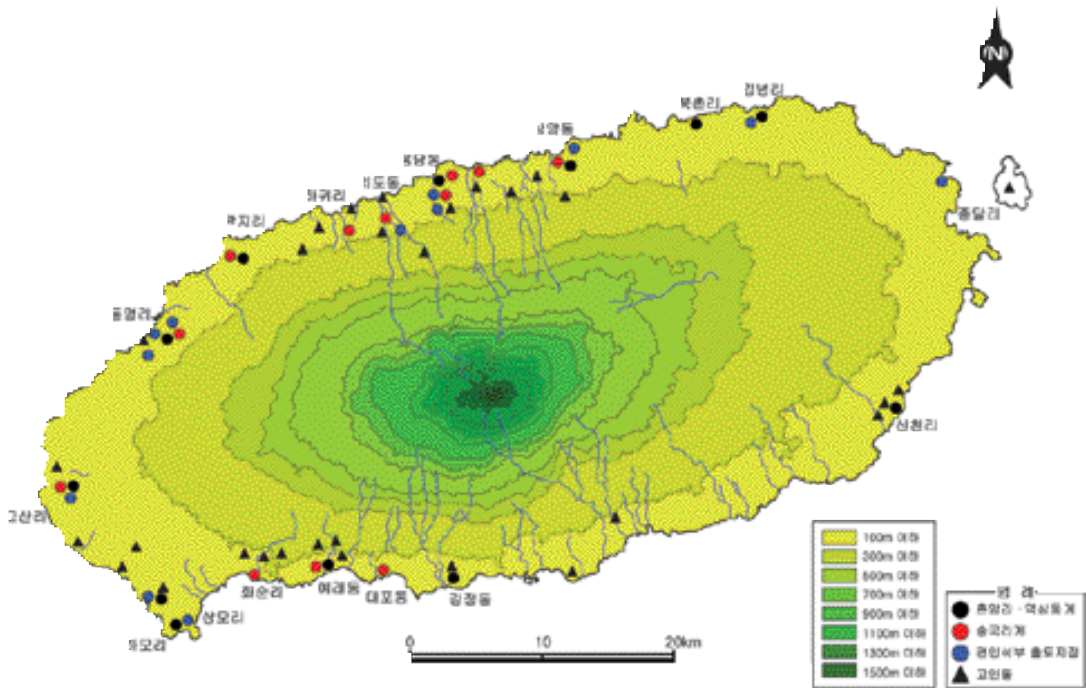
1) 제주도의 토양개황도를 살펴보면 ① 동귀-구엄-용흥 토양군 ② 중문-오라-구좌 토양군 ③ 평대-행원-민약 토양군 ④ 흑악-노로-적악 토양군 등 4개군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①군이 용암류 평탄지로서 매우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양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②군과 ③군은 용암류 대지로 자갈이 다량 포함된 토양이며 ④군은 산악지형에 해당한다.



<도면 1> 제주도 용천수 및 용출량 분포도(5,000톤/일, 제주도 1999에서 인용)



<도면 2> 제주도 토양개황도와 송국리형취락 분포도



〈도면 3〉 제주도 하천분포 및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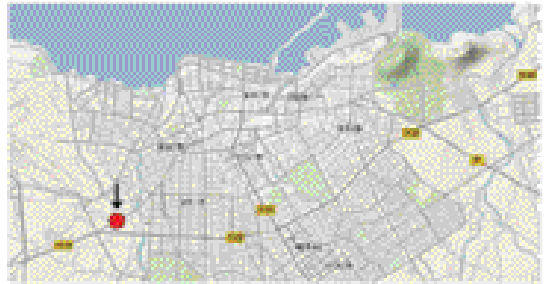
명리·신창리 일대 ③일파리 일대 ④예래동 일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송국리문화의 유입과 함께 제주지역으로 확산·전개되면서 취락을 조성하는 입지 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수와 토양 분포조건이 최우선적 요인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동남부의 신창리와 동북부의 종달리 일대 역시 용천수가 풍부하지만 송국리형 취락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토양조건이 야외 정주취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입지선택의 변수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²⁾.

2) 종달리유적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다량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점토대토기집단이 도래한 후 장시간 점유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5,000톤/일의 용출량을 보이는 용천수 역시 3개소가 분포하는 점으로 미루어 유적의 입지로서 중요한 지역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토양조건에 있어서는 중문-오라-구좌 토양군에 해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급의 토양조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즉 송국리문화 단계에 이미 입지조건을 구비한 지역이 대부분 점유되었기 때문에 이후 도래한 점토대토기집단의 점유지역으로는 불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양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송국리집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점유하지 못했던 곳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 삼양봉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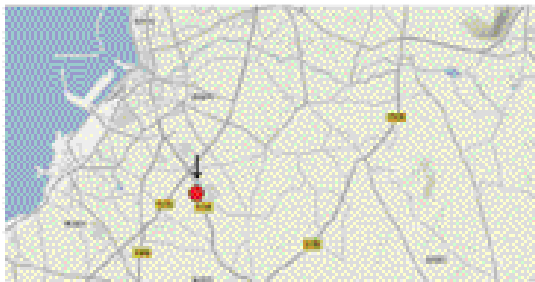
2. 용남봉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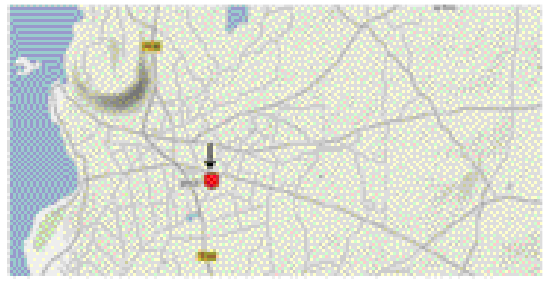
3. 외도동·하귀리유적



4. 락지리유적



5. 동명리유적



6. 고산리유적



7. 화순리유적



8. 애데동유적

〈도면 4〉 송국리형취락의 개별유적 지형도(약 1/10,000, Google 지도 〈한국〉에서 편집)

2. 대내외적 입지

앞서 살펴 본 취락조성의 입지조건 외에 중요시 되는 요건으로는 식량자원의 획득과 대외교류의 입지를 들 수 있다. 즉 취락형성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취락구성원들의 주요 식량원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될 것이다.

한반도 송국리문화의 경우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농경을 통해 잉여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취락이 확대되고 또한 저장과 소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취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장석 2008; 안재호 2009). 따라서 송국리형 취락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농경의 확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송국리형 취락에 대한 조사에서 농경과 관련된 경작유구는 확인된 예가 없다. 특히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탄화곡물을 살펴보다라도 수전농경과 관련된 곡물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조현중 2008, 190쪽). 또한 후술하겠지만 석기류 역시 농경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적극적인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농경활동을 보면 동귀·구엄·용흥토양군에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인구부양력이 높은 보리·조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이외의 3개 토양군은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역 및 동남부 일대에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토양군은 제주도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화산회토지대로 보리의 생육에는 불리하고 기장, 피 등이 주로 재배되었다(김오진 2009, 55쪽).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지역의 토양조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³⁾. 따라서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의 식량자원은 결국 수렵채집과 어로활동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취락의 입지를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안에 인접한 저지대 혹은 평탄대지상에 취락을 형성하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취락내 생활 필수품 중에서 외부로부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선진지역과의 대외교류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송국리형 취락은 대체로 서북부~서남부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남해안 일대와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하천이 밀집 분포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 정도되며 주변 해역을 향해하는 고대 선박들에게 자기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

3) 아래의 「高麗史」, 「世家」〈고려 문종 12년(1058) 8월 7일條를 참고하면 제주지역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알 수가 있다(김종서의 1454).

원 문	내 용
十二年八月乙巳 … 上略 … 內史門下省上言 … 中略 …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12년 8월 7일, … 상략 …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중략 …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 있다(윤명철 2002, 214~215쪽).

한편 17세기대 제작된 『耽羅圖』⁴⁾를 참고하면 포구가 두개 이상 조성된 곳과 또한 두개 이상의 마을이 한 지역에 형성된 곳에는 대부분 송국리형 취락이 조성된 지역과 중복되는 점유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오직 바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교류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규모취락은 당연히 교류와 관련된 해상이동이 매우 유리한 곳에 조성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의 입지조건은 결국 네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용수조건(용출량 5,000톤/일), 둘째 토양조건(동귀-구엄-용흥토양군), 셋째 식량획득조건(반농반어 및 수렵채집 등 복합적인 식량원), 넷째 대외교류조건(자연적인 포구)이다. 따라서 전술한 네가지의 입지적 조건을 모두 갖춘 유적을 살펴보면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광지리, 화순리⁵⁾, 예래동 등이 해당한다. 즉 대규모취락의 경우 이러한 취락의 입지적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입지선택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각 지역별 중심취락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Ⅲ. 송국리형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송국리문화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외반구연호, 유구석부, 유경식석검, 삼각형석도 등을 표식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재호 1992, 2006). 또한 송국리문화의 출현과정과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대략적인 중심시기는 기원전 8~5세기경에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종철 2000; 안재호 2006; 이홍종 2006; 김규정 2007). 즉 기원전 8세기경 출현하여 성행하다가 대략 5~4세기경 한반도에서 송국리문화가 점차 점토대토기문화로 전환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고민정 2003; 박진일 2007a; 이종철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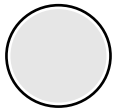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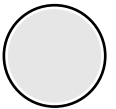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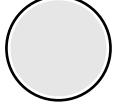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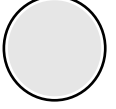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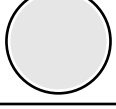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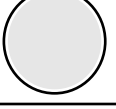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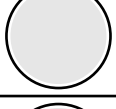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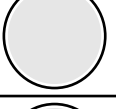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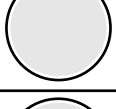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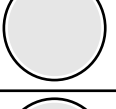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최근조사를 통해 송국리문화가 한반도에서 소멸 이후 더욱 성행하고 지속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김경주 2005, 2009).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야요이 초기~전기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안재호 2006, 22쪽; 이홍종 2006, 253~256쪽) 한반도에서 소멸된 송국리문화가 바다 건너 제주와 일본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 『耽羅圖』는 1678~17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제주도 최고의 고지도로 알려져 있다.

5) 화순리유적은 중문-오라-구좌토양군이 분포하고 있어 예외적이다. 하지만 용천수가 양호하고 대외교류와 관련된 해안선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일대 송국리문화의 성행과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상으로 송국리형 주거형태와 출토유물의 조합상을 검토하고 변천양상을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⁶⁾.

1. 주거지의 변화양상

형태	구분	형태	구분
A		E	
B			
C			
D			
			
			

〈도면 5〉 타원형구덩이 형식 분류 모식도

먼저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취락 중 6군데 유적에서 총 207동이 조사되었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말각방형을 포함한 방형계의 주거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⁷⁾. 즉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단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형식분류는 결국 내부구조인 타원형구덩이의 형태에 의해 구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송국리형주거지의 타원형구덩이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면5)와 같이 크게 5개 형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주거지의 형식별 분포도를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취락은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하귀리, 동명리, 광지리, 고산리, 화순리, 예래동유적 등이 있다. 하귀리유적은 아직 정식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고 고산리유적과 예래동유적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화순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방형계의 주거형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순리유적에서는 137동의 주거지 중에서 6동 정도가 벽체 일부만이 말각방형상의 평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반층인 암반층을 피해 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벽체는 말각방형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970~971쪽).

〈표2〉 송국리형주거지의 형식별 분포도

분류 유적명	A		B		C		D		E		합 계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삼양동유적	40	72.8	6	10.9	4	7.3	4	7.3	1	1.7	55	26.6
용담동유적	9	90.0	0	0	0	0	1	10.0	0	0	10	4.8
동명리유적	1	100	0	0	0	0	0	0	0	0	1	0.5
화순리유적	48	36.6	31	23.7	19	14.5	16	12.2	17	13.0	131	63.3
곽지리유적	0	0	0	0	0	0	0	0	3	100	3	1.4
외도동유적	0	0	0	0	0	0	0	0	7	100	7	3.4
합계	98	47.3	37	17.9	23	11.1	21	10.2	28	13.5	207	100

상기의 표2)에서 보면 삼양동(72.8%)·용담동(90%)·동명리유적의 경우 주거지의 형태가 A형이 66동 중에서 50동(75.8%)으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순리유적은 A형(36.6%)과 B형(23.7%), C형(14.5%)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A형과 B형의 점유율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화순리유적의 경우 A형과 B형이 주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는 삼양동과 용담동에서 확인되는 A형이 이른시기에 해당하고 이후 B형 혹은 C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화순리유적의 조사성과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화순리유적은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 타원형구덩이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A→B→C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제주문화예술회단 2009, 1044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2)의 형식별 분포도를 참고하면 제주도의 송국리형취락은 삼양동·용담동·동명리→화순리유적으로의 상대서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화순리유적에서는 모두 137동의 주거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에서 D형과 E형은 33동(24.1%)이 확인되었다. 선행하는 삼양동과 용담동 단계와 비교하면 화순리 단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제주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시간의 변화속에서도 원형의 평면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타원형구덩이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송국리형주거지의 말기적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곽지리와 외도동유적의 주거지 형태를 보면 대부분 E형에 포함되고 있어 주목된다⁸⁾.

재론하면 제주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평면형태의 경우 지속적으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반면에 타원형구덩이의 형태는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형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외부 양단으로 주혈배치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의 형태는 소멸기에 접어

8) 송국리형주거지의 말기형으로 여겨지는 유적에서는 모두 E형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화순리단계 이후 C형의 점유율이 높은 취락유적이 확인될 경우 양 유적의 중간단계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들면 타원형구덩이만 잔존하거나 소멸하며 양단 주혈의 배치가 불규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해수 2009, 18쪽). 따라서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은 삼양동(수용)→화순리(전개)→외도동(소멸)으로의 단계설정과 함께 시간적 순서배열이 상정된다.

2.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1) 토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는 변천양상을 통해 1단계(수용)→2단계(전개)→3단계(소멸)로 구분되어 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주거지의 변천양상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토기조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3)을 참고하면 1단계(수용)에는 직립(내만)구연토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삼양동식 토기,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원뿔형토기 등이 확인된다. 다음 2단계(전개)에는 직립구연계토기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은 소멸하고 삼양동식토기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토기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단계에는 파수부토기의 변화양상이 간취되며 고배형토기 등 제의와 관련된 토기가 급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소멸)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일부 광지리식토기가 출토된다. 또한 환상의 파수부토기는 대부분 소멸하고 봉상의 파수부토기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3〉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토기변천도

기종 단계	직립구연 (내만)	점토대토기		흑도 장경호	외반구연호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고배형토기)	원뿔형토기
		원형계	삼각형					
1단계	성행	외래계 재지계	외래계 재지계	잔존	삼양동식	환상(다수) 우각형 유두형	두형토기 대부발	출현
2단계	소멸	소멸	소멸	소멸	삼양동식 외도동식	환상(다수) 봉상 출현	고배형토기 출현	
3단계	소멸	소멸	소멸	소멸	외도동식	환상 잔존 봉상(다수)	소멸	잔존

삼양동단계의 경우 무문토기인 재지계의 직립(혹은 내만)구연토기가 다수 잔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래계의 원형점토대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후 유입된 토기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적어도 남한지역에서 유행할 당시의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토대토기는 단면형태가 타원형계 및 말각방형의 변화된 형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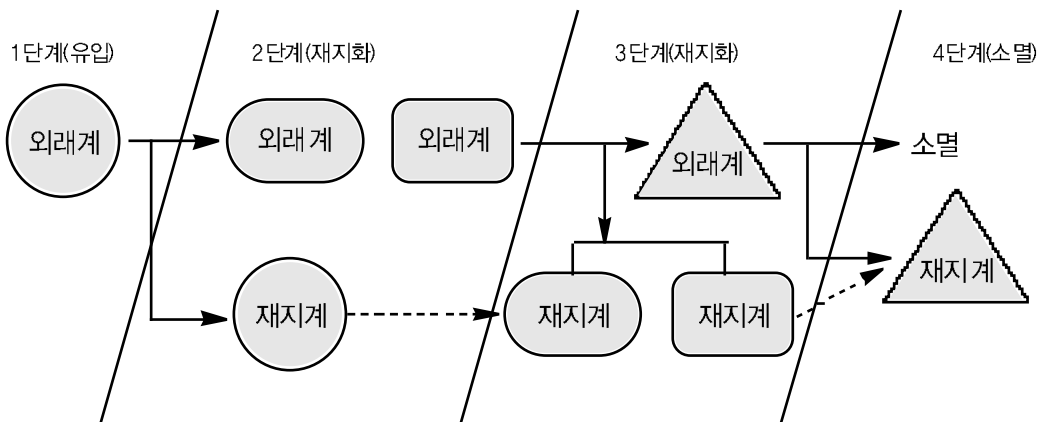
〈표4〉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 출토 점토대토기 분포현황

단계	형태	원형	말각방형	타원형	삼각형
	유적명				
1단계	삼양동유적	■	■	■	■
	용담동유적	■	■	■	
	동명리유적	■			
2단계	화순리유적			■	
3단계	외도동유적				
	곽지리유적				

재지의 태토로 제작된 제주산 점토대토기 역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제주지역 점토대토기는 유입단계-재지화단계-소멸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삼양동유적의 경우 외래계와 재지계토기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타원형과 말각방형계의 외래계 점토대토기가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남해안 지역의 점토대토기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담동유적의 경우에는 재지계토기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에서 유입된 이후 재지화되는 과정은 삼양동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용담동단계에는 원형점토대토기의 재지화가 한층 더 진행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래계토기는 일반적으로 도래지역에서 유행할 시점에 양 지역의 교류와 접촉에 의해 유입되는데 초기에는 유입지역의 토기가 바로 수입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지화 단계를 거쳐 변화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한반도계 무문토기가 유입된 후 서일본지역에서 다소 변화하거나 야요이토기의 요소가 가미된 변화형이 출현하며 이후 유입 당시의 전형적인 토기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



〈도면 6〉 제주지역 점토대토기 유입과 전개 모식도

화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後藤直 2006, 115~116쪽).

결국 삼양동단계에 송국리형주거지가 채택되고 점토대토기가 유입된 후 재지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의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용담동유적은 재지화된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역시 재지계의 말각방형계의 변형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시기적으로 다소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⁹⁾. 하지만 유구의 속성이나 배치관계 및 출토유물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획기를 구분할 정도의 시간차는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적갈색경질토기는 삼양동단계에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종별로 보면 외반구연호, 파수부호, 발형토기, 대부발, 원뿔형토기, 소형토기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김경주 2001, 62~63쪽). 반면 화순리단계에는 상술한 기종 외에 고배형토기와 반형토기, 토기 개(뚜껑), 심발형토기 등 지역색을 갖춘 토기가 출현하게 된다(제주문화예술회관 2009, 1028~1034쪽). 하지만 다음 단계인 외도동단계에는 기종이 매우 단순화되어 외반구연호와 파수부토기, 토기 개 등이 잔존하고 대부분의 기종은 소멸하게 된다. 특히 기종구성의 단순화와 함께 외반구연호의 경우 일정한 기형으로 통일성이 확인된다.

즉 송국리형취락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주로 적갈색경질토기 중에서 외반구연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반구연호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김경주 2005, 2007).

아래의 표5)에 의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에서 구연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외반구연호는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구연부로 이동하는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부 최대경의 위치 또한 동체 중위에서 상위로 이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후행할 수

〈표5〉 외반구연호 최대경 위치

단계	분류 유적명	최대경 위치(구경:동최대경)				합계	
		1:1.1이상(동부)		1:1이하(구연부)		갯수	%
		갯수	%	갯수	%		
1단계	삼양동	40	62.5	24	37.5	64	25.7
	용담동	7	46.7	8	53.3	15	6.0
	동명리	5	50.0	5	50.0	10	4.0
2단계	화순리	25	28.4	63	71.6	88	35.3
3단계	곽지리	8	22.9	27	77.1	35	14.1
	외도동	12	32.4	25	67.6	37	14.9
	합계	97	39.0	152	61.0	249	100

9) 용담동유적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개체수가 적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대다수가 재지상태로 제작된 점으로 미루어 재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로 추정된다.

록 강하게 위반되며 토기 전체적으로는 장동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김경주 2007, 201~202쪽).

부연하면 화순리단계에 접어들면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구연부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위반정도가 이전 단계에 비해 매우 강하게 변화하며 토기 기형이 획일성을 보여주 기 시작하는 현상이 간취된다. 이후 광지리와 외도동단계에 접어들면 이러한 위반구연호는 일률적 인 기형으로 단일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는 토기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한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파수부토기는 파수형태에 따른 선후관계가 인정되는데 환상파 수→조합식 우각형파수→봉상파수로의 변화가 상정된다(서길덕 2006; 박진일 2007b). 반면 제주지 역에서 출토된 파수부토기의 변화양상을 보면 아래의 표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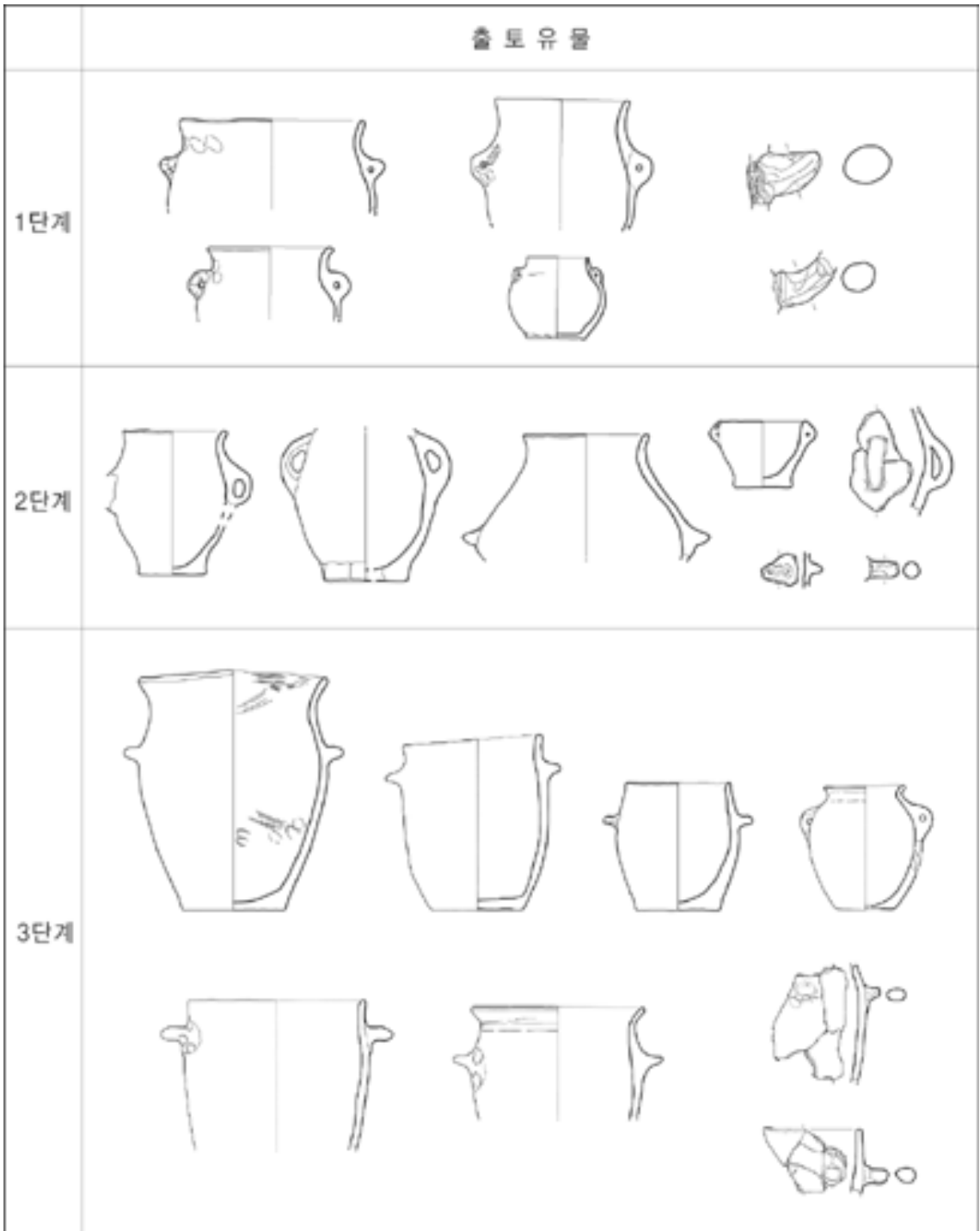
〈표6〉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파수부토기 변화양상

단계	형 태 유적명	환상파수		우각형파수		유두형파수		봉상파수		합 계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1단계	삼양동유적	26	89.7	3	10.3	0	0	0	0	29	19.5
	용담동유적	1	50	0	0	1	50	0	0	2	1.3
	동명리유적	3	23.1	0	0	9	69.2	1	7.7	13	8.7
2단계	화순리유적	27	84.4	0	0	0	0	5	15.6	32	21.5
3단계	광지리유적	0	0	0	0	0	0	6	100	6	4.0
	외도동유적	5	7.5	0	0	0	0	62	92.5	67	45.0
	합 계	62	41.6	3	2.0	10	6.7	74	49.7	149	100

상기한 표6)을 참고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파수부토기에 대한 분석결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삼양동유적에서는 환상파수부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신대곤외 2006) 이에 후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화순리유적에서도 환상파수의 점유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화 순리유적의 경우 후행하는 외도동유적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상파수가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파수부토기는 환상·유두형→우각형→봉상형으로의 변화양상이 인정된다(박진일 2007b).

특히 화순리유적에서는 우각형과 봉상의 혼합형으로 추정되는 파수(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891 쪽)가 환상파수와 함께 동반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화순리단계에 우각형에서 봉상의 형태로 전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반 출토된 적갈색경질토기 위반구연호를 보면 구경 대비 저경이 다소 안정적으로 변화하며 동최대경이 최상위에 형성된 기형으로 화순리유적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상파수→봉상파수로의 전환은 화순리단계의 늦은시기 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화순유적에서는 굵이 낮은 형태의 대부발(고배형토기)이 다수 확인된다. 이는 두형토기 의 대각이 낮아진 형태로 추정되며 삼양동 단계의 두형토기는 대각이 높은 장각형 토기와 단각형의



〈도면 7〉 제주도 송국리형취락 출토 파수부토기(축적 1/8)

대부발이 함께 확인되지만 화순리 단계에는 단각형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조적이다¹⁰⁾.

또한 토기 개의 경우 삼양동단계까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화순리단계에 접어들면 출현하는데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즉 1) 봉상의 파수가 부착된 나팔형태 2) 파수가 부착된 원판형태 3) 파수가 없고 드림부가 형성된 원판형태가 확인된다. 반면 외도동단계에 접어들면 나팔형의 토기 개는 소멸하고 대부분 원판형태로 변화한다. 특히 원판형의 토기 개는 다시 파수의 형태에 따라 환상, 봉상, 유두형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2) 석기

다음으로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에서 출토된 석기조성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¹¹⁾.

타제석부는 대부분 굴지구로 이해되고 있으나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중되는 현상을 통해 밭농사에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¹²⁾.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농경과 관련된 경작유구가 확인된 바 없으며 또한 타제석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농경구가 출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굴지구나 별채구는 화전작과 관련된 농경도구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으며(안재호 2006, 170~171쪽) 특히 수확구와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를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농경과 관련된 농경구로 이해하기도 한다(손준호 2008, 47쪽). 이를 수용하면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취락 단계의 농경관련 도구는 전체 14.1%(삼양동 19.5%, 용담동 17.0%, 동명리 46%, 화순리 7.9%, 광지리 4.3%, 외도동 0%)에 해당한다. 삼양동→외도동유적으로 갈수록 농경구의 비중이 축소되는데 이는 철기로 대체되면서 석기제작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화순리단계 이후 식량처리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탐라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석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점을 보면 동시기 생계경제와 밀접한 도구임을 추정케하고 있다. 다만 제주민속박물관 소장유물 중에 삼각형석도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이러한 석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토양조건상 수전농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표7)에서 보는 것처럼 타제석부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순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 석기가공구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에 식량처리구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¹³⁾.

10) 두형토기의 나팔상 대각은 원형과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전환단계에 해당하며 삼각형 단계에는 대부발 형태의 토기로 전환된다(서길덕 2006, 347~349쪽).

11) 표7)의 석기분류는 손준호(2008, 42쪽)의 분류방식에 의거 기종과 기능에 따라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 수렴구, 어로구, 식량처리구, 상징의례구, 방직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12) 타제석부는 석초(石草)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전작을 위한 농경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平井勝 1992,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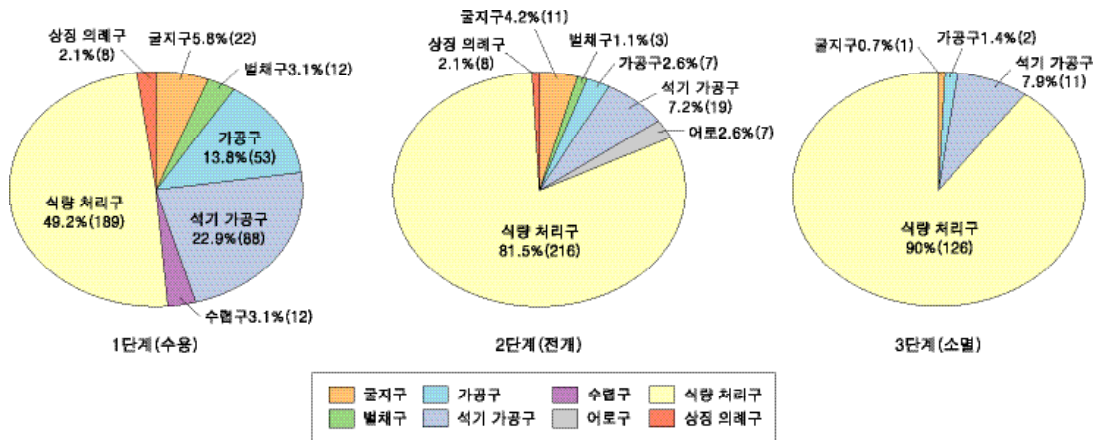
13) 식량처리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경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생계방식으로 채집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호 2008, 54쪽).

〈표7〉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출토 석기 조성비 현황

분류	유적 구성비 기종	삼양동		용담동		동명리		화순리		곽지리		외도동		합계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굴지구	타제석부	10	3.5	2	4.3	10	20.0	11	4.2	1	1.5	0	0	34	4.3
	소계	10	3.5	2	4.3	10	20.0	11	4.2	1	1.5	0	0	34	4.3
별채구	양인류	9	3.1	1	2.1	2	4.0	3	1.1	0	0	0	0	15	1.9
	소계	9	3.1	1	2.1	2	4.0	3	1.1	0	0	0	0	15	1.9
가공구	편인류	37	12.9	5	10.6	11	22.0	7	2.6	2	2.9	0	0	62	7.9
	소계	37	12.9	5	10.6	11	22.0	7	2.6	2	2.9	0	0	62	7.9
석기 가공구	지석	68	23.7	7	14.9	13	26.0	19	7.2	5	7.2	6	8.5	118	15.0
	소계	68	23.7	7	14.9	13	26.0	19	7.2	5	7.2	6	8.5	118	15.0
수렵구	석촉	12	4.2	0	0	0	0	0	0	0	0	0	0	12	1.5
	소계	12	4.2	0	0	0	0	0	0	0	0	0	0	12	1.5
어로구	어망추	0	0	0	0	0	0	7	2.6	0	0	0	0	7	0.9
	소계	0	0	0	0	0	0	7	2.6	0	0	0	0	7	0.9
식량 처리구	요석	20	7.0	5	10.6	1	2.0	76	28.7	12	17.4	10	14.1	124	15.7
	고석	63	22.0	15	31.9	9	18.0	97	36.6	22	31.9	18	25.4	224	28.4
	마석	8	2.8	5	10.6	0	0	0	0	7	10.1	0	0	20	2.5
	연석	52	18.1	7	14.9	4	8.0	43	16.2	20	29.0	37	52.1	163	20.7
	소계	143	49.9	32	68.0	14	28.0	216	81.5	61	88.4	65	91.6	531	67.3
상징 의례구	곡옥	1	0.3	0	0	0	0	1	0.4	0	0	0	0	2	0.2
	석검	4	1.4	0	0	0	0	1	0.4	0	0	0	0	5	0.7
	검파두식	2	0.7	0	0	0	0	0	0	0	0	0	0	2	0.2
	석환	1	0.3	0	0	0	0	0	0	0	0	0	0	1	0.1
	소계	8	2.7	0	0	0	0	2	0.8	0	0	0	0	10	1.2
	합계	287	100	47	100	50	100	265	100	69	100	71	100	789	100

마제석부는 별목용과 목재가공용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합인석부, 후자는 편인석부 또는 편평석부에 해당한다. 특히 수전경작의 경우 이에 적합한 목제 농구의 제작을 위해 합인석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인석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안재호 2006, 170~171쪽). 또한 석촉의 경우에는 편평촉은 수렵구, 능형촉은 무기로 그 기능을 추정하고 있다(손준호 2008, 38~39쪽).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촉의 경우 평기식의 편평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는 대략 3단계의 단계설정이 가능하다. 즉 1단계(수용)는 서북부지역의 삼양동·용담동 일대에 취락이 조성되는 단계로 A형의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류는 양인석부가 잔존하며 편인석부, 일단병식석검, 삼각형편평석촉 등이 출토된다.



〈도면 8〉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출토 석기 조성 분포도

2단계는 송국리형취락의 중심지역이 서남부지역인 화순리·예래동 일대로 이동한다. 주거지는 전 단계에 비해 A형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B형과 C형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와 점토대토기가 소멸하고 삼양동식토기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또한 파수부토기의 경우 환상파수→몽상파수로의 전환단계에 해당하며 지역색을 보여주는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반면 석기류는 석기가공구와 식량처리구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멸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단계에는 상당수의 도구가 철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소멸)의 주거지형태는 E형식만 확인되고 있다. 즉 타원형구덩이의 기능이 상실되어 소멸하며 양단 주혈배치가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단계이다. 토기는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이전 단계에 보이던 다양한 기종은 대부분 소멸하고 파수부토기와 토기 뚜껑 등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석기는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식량처리구가 압도적으로 확인되며 반면 철기 출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IV. 송국리문화의 수용

1. 송국리문화의 유입

여기서는 남해안 일대 특히 호남지역 송국리문화의 전개양상을 검토하므로써 제주지역에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배경을 살펴보면 호남지역과의 교류와 관련된 접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지역의 경우에도 결국 호서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기 전에 유입되어 성행하였고 다만 그 소멸시기가 다소 내려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이종철 2008). 즉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간적 정체성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초기형태는 결국 호서지역의 성행시점↔호남지역의 초현시점↔제주지역의 교류시점을 동시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상술한 추론은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최소의 중복기간이 상정되며(庄田 愼矢 2006, 12쪽) 유물이나 유구의 공반상이 동일한 경우 한반도 내에서 그 양자는 동일시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안재호 2006, 32쪽)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적어도 양 지역간 문화양상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면 양자간의 다양한 전파 혹은 이주든 아니면 문화접촉 및 접변이든 상호 지역간 최소한의 교집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양상의 흐름속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시공간적 범위내에서 양 지역간 동일한 문화양상이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 호남지역 등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먼한 지역과의 상호 교류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체계를 바탕으로 선진문물의 지속적인 접촉과 유입을 통해 제주지역 나름의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상술하였다시피 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국 호서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성행하는 시점에 호남지역은 물론이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진문물에 일부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호서지역의 송국리문화가 성행하는 시점에 이입되기 시작하는 호남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지역에 이러한 물질문화가 일부는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동이 불가능한 주거형태를 배제한 토기와 석기 등 운반·이동이 가능한 도구부터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송국리문화단계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혼암리·역삼동 단계의 변화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혼암리·역삼동단계의 표지적인 유적으로는 상모리유적이 해당한다. 상모리유적의 말기적 토기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복합문양에서 점차 단순문양으로 전환되고 구연단이 외반되는 현상이 확인된다¹⁴⁾. 또한 이 보다 후행하는 하모리유적의 경우도 구순각목+직립(내만)→직립구연토기,

구순각목+외반→외반구연토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토기의 변화 양상이 결국 송국리문화의 최초 이입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이홍중 2006, 245쪽; 2007, 32~33쪽; 김경주 2007, 195~197쪽).

한편 송국리문화의 초기 전이현상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제주지역 일원의 여러 곳에서 유구석부를 포함한 편인석부류와 삼각형석도 등 송국리단계의 석기조합상이 폭넓게 확인되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특히 서귀포시 대포동유적에서 동반 출토된 송국리형토기와 유경식석검은 대표적인 송국리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 중 송국리단계에 성행하는 유구석부¹⁵⁾와 편평편인석부, 석착 등 편인류의 석기조합이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미 상모리단계 말기에 송국리문화가 간헐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손준호 2006, 80쪽). 또한 토기조합에서도 종말기의 형식을 보면 송국리문화의 접변현상이 일부 간취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모리유적의 종말기와 하모리유적 단계는 혼암리·역삼동계 말기~송국리 초기단계의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경주 2007, 199~2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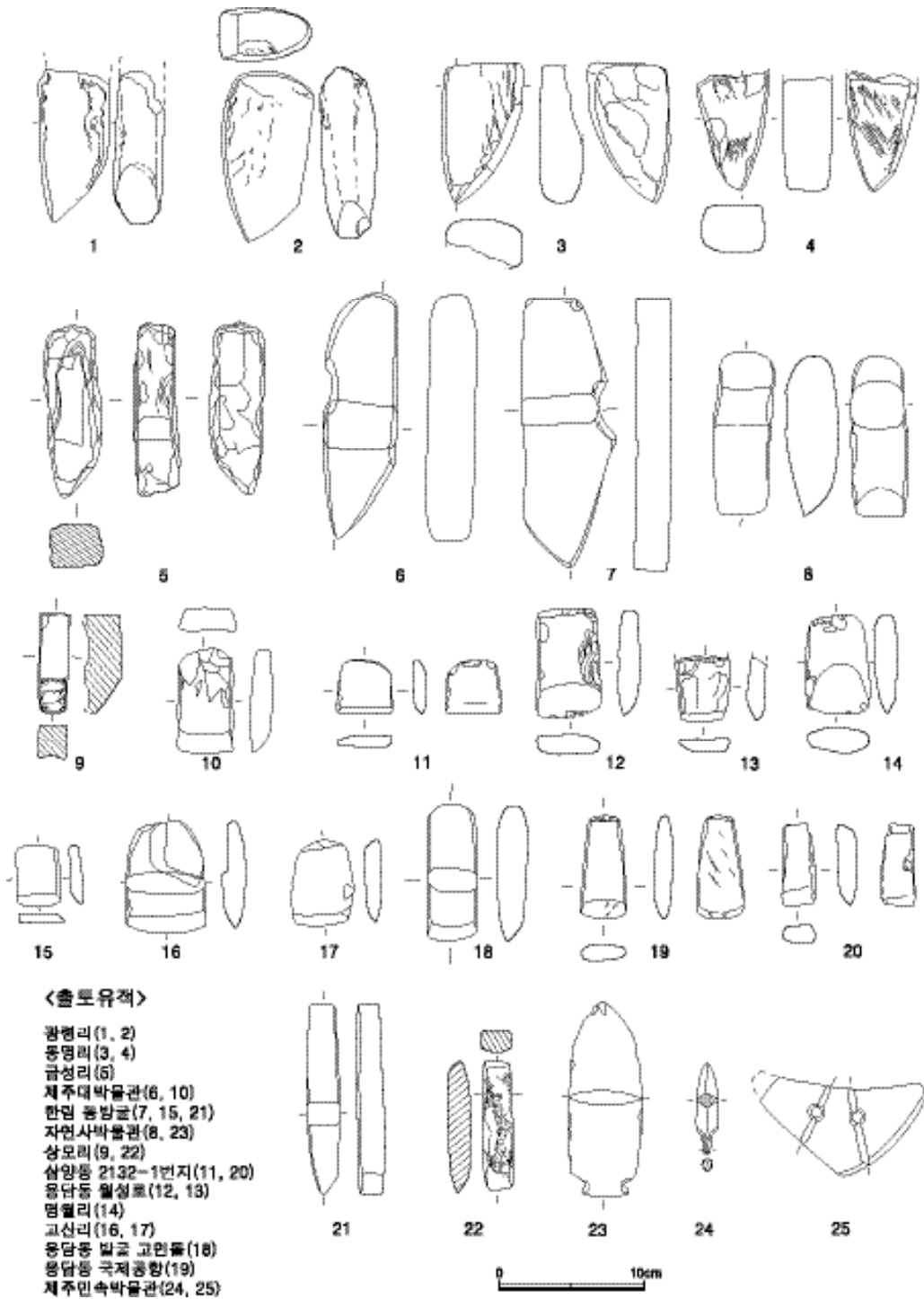
전술하였듯이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와 석기조합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형태의 수용과 채택에 선행하여 토기와 석기류가 먼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주거형태가 채택되면서 삼양동을 비롯한 용담동유적 등 제주 서북부 지역에 대규모 취락이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역삼동단계에서 송국리단계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복합문→단순문으로의 변화가 상정되고 있다. 특히 김승옥(2006a, 161쪽; 2006b 25쪽)은 역삼동 방형단계를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하면서 동시기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하면 1)복합문과 삼각만입축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 2)일단정식석축이 급격히 증가 3)복합문의 감소와 함께 단순문과 무문양의 토기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강유역의 경우에도 2기에 역삼동과 혼암리단계의 토기와 석기조합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행하는 3기에는 역삼동·혼암리단계의 토기조합이 단순문양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석기조합에서도 편평편인석부 외에 주상편인석부 등 송국리단계의 석기조합이 보이기 시작한다. 반면 4기에는 소멸단계의 공렬토기와 함께 외반구연토기가 공반되고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일단정식석축 등 송국리단계의 유물조합이 주체를 이루고 있다(고민정 2003, 81~94쪽).

14)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변천양상을 보면 혼암리식토기→상모리식토기(재지화)→가락동계가 소멸하는 단계(각목공렬토기)→역삼동계가 소멸하는 단계(단순 각목 및 공렬토기)로 단계설정이 가능하다(제주대학교 박물관 1990; 이청규 1995, 141~144쪽; 김경주 2007, 194~197쪽).

15) 유구석부는 현재까지 후기유적에서만 주로 확인되어(손준호 2006, 88쪽) 송국리단계의 대표적인 석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남강유역의 경우에도 4기(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외반구연호)에 접어들면서 유구석부가 출현하는 점을 보면(고민정 2003, 91쪽) 이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반면 배진성에 따르면 유구석부는 주상편인석부에서 형식변화한 것이고 선송국리유형단계에 출현하여 송국리단계에 유행하고 원형점토대 토기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배진성 2001, 37~41쪽).



〈도면 9〉 제주도 출토 편인석부 및 송국리단계 석기류(축적 1/4)

한편 이진민(2004, 43~46쪽)은 역삼동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고 II기가 되면서 장방형 혹은 (말각)방형으로 주거지가 축소되고 원형계가 일부 등장하며 가락동유형은 소멸하고 공렬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단병식, 유경식석검, 주상편인, 유구석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역삼동 말기에 송국리형의 특징이 일부 조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역삼동단계의 유물조합이 늦은 시기로 내려오면서 문양의 단순화가 진행되고 송국리단계의 유물조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김경주 2007).

2. 송국리문화의 수용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초기형태는 평면원형에 A형이 대다수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A형의 주거지가 처음 제주에 출현하는 배경과 수용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호서지역의 경우 A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강유역(중상류와 하류역 포함)에는 II A형(원형+내부 양단 주혈, 70% 이상 점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호남지역의 경우에도 II A형이 우세하나 전남 동부내륙지역과 남해안 동부지역으로는 B형(필자 분류 C형)과 C형(필자 분류 E형)이¹⁶⁾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인접한 서부경남지역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규정 2006, 24~38쪽).

즉 전술한 내용을 참고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전개는 결국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가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C형식의 주거지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평면형태에 있어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영남지역과의 연관성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⁷⁾.

환언하자면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직접적인 유입경로는 평면형태 원형에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형태의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금강유역(73%)을 기점으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호남 북서부지역(64%)→서남부지역(55%)→영산강유역(58%)→남해안 서부지역(57%)을 거쳐 제주 서북부지역(삼양동·용담동)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의 북서부 해안과 가장 지근거리에 해당하는 영산강유역과 탐진강일대의 조사성과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산강유역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61.3%)이 방형

16) 이후에는 필자의 분류안에 따른 형식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17) 일본의 경우 최고의 환호유적으로 알려진 江戶유적의 경우 한반도 동남지역의 송국리계(오곡리식 주거지)와 유사성이 간취되는데 제주지역과 구분되고 있어 주목된다(안재호 2006a, 102쪽).

(38.7%) 보다 우세하게 확인된다(유항미 2006, 21쪽). 반면 탐진강유역의 주거지는 방형(53.7%)이 원형(46.3%)에 비해 다소 우세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08, 29쪽). 즉 영산강유역은 원형계가 탐진강유역은 방형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유항미(2006, 22~23쪽)는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면형태가 원형이든 방형이든 양단주혈의 배치는 A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형계로 분류된 주거지 중에서 벽선이 곡선화된 타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원형계+A형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김규정 2006, 43쪽).

한편 탐진강유역은 대부분의 주거지가 A형을 채택하고 있어 평면형태와 달리 내부구조는 영산강유역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08, 37~38쪽). 따라서 영산강~탐진강유역에 이르는 전남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의 형태는 평면형태가 원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또한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각각 배치되는 A형식이 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금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가 대부분 원형계의 A형인 점을 보면 결국 금강→영산강→탐진강유역으로의 확산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김승옥, 2006).

환연하자면 서해안 및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가 서해안을 따라 영산강유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또한 탐진강과 보성강유역으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제주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의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서북부지역의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서 확인된 주거지가 A형이 75.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시점은 영산강과 탐진강 유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송국리문화가 번성했던 기원전 7~5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송국리형주거지의 형식분류를 통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부지역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과의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이종철 2000, 김한식 2001, 김한상 2002, 김승옥 2006, 김규정 2006). 특히 남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평면형태는 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으로의 변화상이 간취되고 있으며 C형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지역색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말각방형의 경우에는 A형이 B형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배덕환 2005, 78~79쪽).

양 지역간 주거형태의 지역색은 유병식석검의 분포상태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 박미현(2008, 87~91쪽)은 영산강·보성강·섬진강유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경우 I기에는 유병식석검이 존재하지 않지만 II기가 되면서 유병식석검이 출현하는데 낙동강 유역권에서 기술이 유입되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성강과 남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나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즉 영산강유역과 낙동강유역간의 이러한 차이는 양 지역집단의 상호교류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간 교류의 단절은 곧 주거형태의 지역적인 차이를 초래하였고 출토유물의 조합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제주지역은 결국 영산강~탐진강유역의 전남 서부지역을

통해 송국리형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남강~낙동강유역권과의 교류는 부족했음을 알 수가 있다. 후행하는 원삼국~삼국시대의 경우에도 변·진한 및 가야지역을 배제한 마한·백제와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이를 더욱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김경주 2009, 172~176쪽).

상술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는 호서지역→호남지역→제주지역으로의 확산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시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략 기원전 7~5세기경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시기에는 송국리문화의 전반적인 수용보다는 단편적인 부분에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송국리문화의 중심지역인 경우에도 토기조합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결국 주거형태와 토기의 채택에 있어 달라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홍중 2006, 119쪽).

일본 구주지역의 경우에도 야요이시대 개시단계에 송국리문화 관련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구주지방을 포함하여 긴끼지방 일대에서 송국리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송국리형토기는 宇久松原유적의 예가 유우스식(夜臼式土器) 단계 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¹⁸⁾.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繩文晩期の 유우스식 단계부터 이다즈케(板付)Ⅱ式の 古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64~78쪽).

이홍중(1992, 142~149쪽)에 따르면 일본지역에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현하는 시점은 기원전 4세기 전반대에 서북구주로 이동하기 시작하며¹⁹⁾ 기원전 2세기경에는 한반도에서 송국리형주거형태가 소멸하지만 서북구주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안재호(안재호 2001, 376~386쪽)는 일본지역 송국리형주거지가 한반도의 중기후반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열도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 시점은 전기 후반(板付Ⅱ式 新段階)이므로 기원전 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제주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도 이와 동일한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문배 2004, 99쪽).

일본열도의 긴끼지방(和歌山縣 川邊遺蹟)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원형점토대토기 이후 시기인 彌生時代 중기 중엽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庄田 愼矢 2007, 30~31쪽). 즉 송국리형주거지의 존속시기가 상당기간 길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외래의 물질문화를 수용하고 재지화하여 지속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혹은 재지의 주민집단에 따라 그 존속시기를 달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점토대토기집단은 요녕지방에서 한반도에 이주한 결과로 보는 견해²¹⁾가 지배적이다(이청규 2000, 박순발 2004, 이성재 2007, 박진일 2007). 또한 요녕지역에 점토대토기가 성행하는 시기는 기원전

18) 宇久松原유적의 토기는 양 지역간의 교역에 의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19) 최근 이홍중(2006, 252~254쪽)은 일본의 新 AMS연대와 관련하여 일본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시점을 기원전 8세기대로 상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20) 최근 박진일(2007a, 164쪽)은 일본열도에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板付Ⅱ式 古段階) 시기에 대해 기원전 4세기 말을 상한으로 추정하고 있어 다소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6세기 이전에 해당하며 한반도에 점토대토기가 유입된 것은 이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²²⁾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성재 2007, 中村大介 2008).

따라서 한반도에서 원형점토대토기의 성행단계는 기원전 5~3세기경으로 편년되고 있다(이숙임 2003, 2007; 이화중 2004, 2006; 박진일 2007a, 2007b; 송종렬 2008). 반면 일본지역 점토대토기의 확산과정을 보면 이다즈케Ⅱb式(彌生時代 前期後葉)부터 보이며 이 시기에는 송국리식토기가 수반되고 있다(中村大介 2008).

한편 호남지역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적석목곽묘, 토광묘, 주구묘 등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기원전 4~3세기 전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흑도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동희 2002, 40~46쪽).

반면에 삼화지구에서 확인되는 토광묘 역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보면 호남지역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8). 또한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흑도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긴편으로 이동희 분류의Ⅰ단계에 해당한다. 원형점토대토기의 경우에도 동체 상부가 팽창된 형태에서 장동화되는 형태가 확인되는 점²³⁾을 고려할 때 삼양동 단계의 점토대토기 유입시점은 대략 기원전 4~3세기경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1차적으로는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성행하는 송국리단계의 유물이 먼저 유입된 이후 송국리형주거지를 채택하는 시점에 이르러 전반적인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송국리문화의 수용 단계는 대략 기원전 4~3세기경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규모취락의 조성은 결국 호남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기원전 4세기대 이후 본격적으로 축조되고 성행하며 기원전 2세기대 이후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즉 호남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시점에 제주지역에서는 오히려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규모취락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서는 전남지역에 송국리유형이 재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인구결집지의 변동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재훈 2009, 50~52쪽). 따라서 인구결집지의 변동에 따른 주민집단의 이주와 함께 이후 남해안 일대에 확산되는 점토대토기집단과의 상관성 속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21) 노혁진(2001, 114~115쪽; 2009, 156쪽)에 따르면 점토대토기집단은 이동성이 강하고 정착농경을 배제하며 생계경제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보다 영토 확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정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22) 中村大介(2008, 75쪽)는 한반도에서 늦어도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고 기원전 3세기 후엽경까지는 송국리식토기와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송종렬(2008, 60쪽)은 원형점토대토기가 장동화되는 단계를 기원전 4세기 후반~기원전 3세기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어 참고된다.

24) 일본열도의 경우에도 한반도의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시점부터 활발하게 축조되고 발전하는 점은 제주지역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안재호 2006a, 74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형원 2009, 242~253쪽).

상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주의 송국리문화는 호남지역에서 성행하던 시점에 유입되고 초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삼양동과 용담동 등지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 취락은 결국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후 초현시점을 지나 적극적인 수용단계에 접어든 취락으로 규정할 수 있다²⁵⁾. 즉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한다면 결국 본고에서 논의하는 1단계(수용)의 송국리형취락은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단계가 아닌 전반적인 수용 후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기 직전단계까지의 취락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용단계의 취락을 살펴보면 주거지는 원형계의 A형이 대부분이고 규모는 직경 4~5m 내외가 일반적이며 면적은 13m² 이상과 미만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28m² 이상인 비교적 대형 주거지도 확인된다. 주거지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5~6동이 원형상으로 배치되고 있다.

초기의 취락에서는 주거지 상호간 위계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단계에는 송국리형주거지와 함께 생산 및 저장과 관련된 다양한 수혈유구가 확인된다. 또한 야외노지, 요지, 구상유구, 굴립추건물지 등이 조성되고 동시기 모제인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한 모제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유경식석검 등이 출토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8). 반면 옹관묘는 토광을 굴착하고 대형토기 2개를 합구식으로 횡치한 후 주변으로 자갈한 자연석을 보강하여 축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8a, 2008b).

수용단계의 취락에서는 재지계의 직립(내만)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외래계인 원형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가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류는 양인석부가 잔존하며 편인석부(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석착 등), 마제석검(일단병식, 유경식), 마제석촉(일단경촉, 삼각형편평석촉), 지석 등의 공구 및 무기류가 출토되며 요석, 연석, 고석 등의 식량처리구도 확인된다.

동시기의 특징으로는 이전 단계에 비해 편인석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송국리단계의 일단병식과 유경식석검이 출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삼각형편평석촉(평기식)이 다수 출토되었는데²⁶⁾ 이러한 석촉은 호서지역과 강원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 공반 출토예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 석촉의 특징으로 여겨진다(노미선 1998; 이숙임 2003, 2007; 이화중 2006; 충남대박물관 2008).

25) 이홍중(2006, 254~255쪽)은 일본지역에 송국리문화의 파급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개시되었지만 이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파급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과 같은 대규모취락을 조성하기 직전단계인 소규모의 송국리형취락이 확인될 경우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26) 이숙임(2003, 2007)은 강원지역 점토대토기문화를 검토하면서 삼각형편평석촉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촉 12점 중에서 평기식의 삼각형편평석촉은 모두 8점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점토대토기 단계의 형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호서지역 점토대토기 단계 역시 이러한 석촉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V. 松菊里文化의 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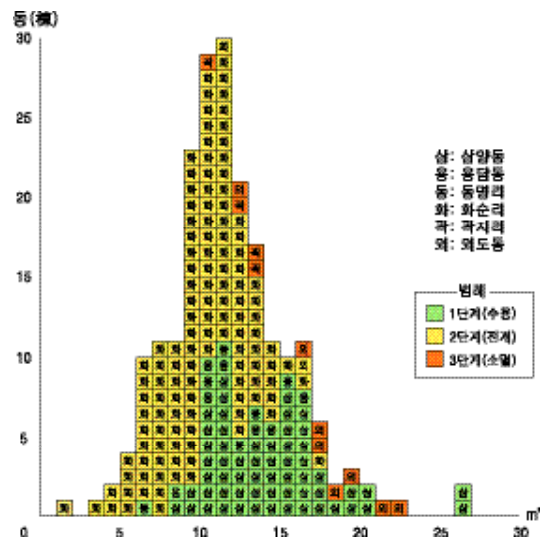
1. 송국리문화의 전개

제주 서북부지역에 송국리형취락이 수용된 후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삼양동취락이 소멸되는 시점에 화순리유적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중심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서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점은 대략 기원전 2세기대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산단계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수용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계속해서 축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후기에 접어들면 주거지의 내부구조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 설치된 타원형구덩이를 보면 수용단계에는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A형이 80%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확산단계의 경우에는 B형과 C형 등 점차 다양성을 보이거나 소멸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또한 도면10을 참고하면 전단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다양화되는 한편 전반적으로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3~4m 내외가 일반적이며 특히 면적이 13㎡ 미만인 경우가 90%에 해당하는데 전단계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최대 규모의 주거지 면적도 18㎡ 정도에 불과하고 6㎡ 미만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점은 확산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환언하자면 다수의 주거지를 다양한 기능에 따라 활용하는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취락내 일상생활에 있어 주민집단 각각의 세대별 역할에 대한 분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주거지 벽체에 자연석과 할석을 쌓아 보강한 석벽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여타 주거지에 비해 입지와 규모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며 유물조합에서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수의 주거지에서 철기와 옥, 구슬 등 위세품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 단계의 취락구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산단계의 취락은 대규모 공간을 두고 일



〈도면 10〉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 면적 도수분포도

정한 입지선택이 이루어진 곳에 지속적으로 주거지가 배치되고 있다. 또한 그 주변으로는 생산과 관련된 각종 수혈유구와 소토유구 등이 배치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반면에 제의 및 분묘공간, 폐기공간, 저장 및 공동시설 공간, 집회공간(광장) 등 취락내 공간분할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특히 분묘 공간인 경우 독립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석묘 역시 취락의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확산단계의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류는 전단계에 확인되던 재지계의 직립(내만)구연토기와 외래계의 점토대토기 등은 소멸한다. 또한 전 단계의 삼양동식토기가 후행하는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 과정의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즉 전반적으로는 외도동식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서남부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반형토기, 심발형토기와 함께 새롭게 고배형토기, 토기 개(뚜껑) 등이 출현한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반면에 석기류는 요석, 고석, 연석과 같은 식량처리구가 대부분이며 무기류와 공구류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산단계가 되면 일부 석기를 제외한 대다수가 철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특히 이 단계에는 원뿔형토제품, 원판형토제품, 이형토제품, 토제곡옥, 토제구슬 등 토제품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제의와 관련된 의례행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제는 수용단계부터 지석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대형 집석묘와 옹관묘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형집석묘인 경우 방형상의 집석을 돌리고 그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곽 적석렬에 잇대어 옹관을 매장하는 형태의 모제가 축조된다. 이러한 모제는 결국 화순리 취락내의 최고 상위계층의 모제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와 같은 단독묘와 인접하여 의례행위와 관련된 대형 집석유구가 축조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굴립주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즉 화순리취락에서는 최고 상위계층의 대형 단독 집석묘와 함께 공공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설이 동일한 곳에 배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 단계에 비해 확산단계에는 최고 상위계층의 지위가 상당부분 상향되어 계층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또한 공공의례와 관련된 행위의 신성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송국리문화의 소멸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국리형 취락은 제주지역에 유입된 후 확산단계에 접어들면서 화순리유적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으로 중심지역이 이동하게 된다²⁷⁾.

주지하다시피 송국리문화가 제주지역에 유입된 후 재지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지의 규모는 다소 축소되어지고 내부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화순리 단계 이후 다양하게

27) 최근 조사된 하귀리유적을 참고하면 하귀리·외도동·광령리 일대의 대규모 유물산포지가 확산단계의 송국리형취락일 가능성이 높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변화하는 타원형구덩이는 후행하는 광지리와 외도동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소멸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광지리유적의 예를 보면 중앙부에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혈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초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타원형구덩이만 잔존하거나 아니면 양단 주혈이 무질서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타원형구덩이가 소멸됨과 동시에 양단의 기둥자리는 초석을 세워 지상화되는 단계의 주거지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외도동식주거지 역시 주거지의 중앙부에 타원형 혹은 원형상의 수혈을 굴착하고 양단으로는 각각 초석을 배치하거나 혹은 주거지 상면에 그대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술한 주거지를 통해 송국리형주거지가 재지화되어 소멸되는 과정의 주거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2007; 마한문화연구원 2007).

송국리형주거지는 소멸단계에 접어들어도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형평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부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특히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춘 외도동식주거지로 발전하면서 전형적인 송국리형주거지는 대부분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원형평면과 양단 중심 기둥축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를 축조했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승계되는 취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도동식주거지²⁸⁾는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된 예가 없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가 없지만 주거지 내부의 집·배수(신상호 2007, 49~50쪽) 혹은 취사와 관련된 노지시설(度田 誠 1982, 31쪽)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4~5m 내외로 확산단계에 비해 규모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면적은 대체로 14㎡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상에 원형의 구를 설치하여 축조한 원형건물지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石野博信 1995, 232~233쪽;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한편 소멸단계에 해당되는 외도동유적을 살펴보면 직경 1m 내외인 3~4개의 수혈이 군집을 형성하면서 일정하게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이전 단계에 확인되지 않았던 우물이 새롭게 축조되기 시작한다. 직경 2m 이상되는 대형우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독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소형우물은 2기가 세트를 이루며 특정 공간에 배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취락 내부에는 소토유구, 매납유구, 석축시설 등이 축조되고 있다. 특히 석축시설은 단순한 경계를 의미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취락의 영역을 과시하는 의미로서 최고 상위계층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즉 전단계에 축조되는 대형의 단독 집석묘를 축조했던 특수계층에 의해 계획된 취락이 조성되고 취락과 외부를

28) 외도동식주거지는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예가 없다. 다만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縣 堂地東遺蹟)에서 확인된 원형다구획주거지(円形多區劃住居址)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石野博信 1995, 228~230쪽). 또한 해남 분토리유적에서 확인된 송국리형주거지(8호)의 경우 타원형구덩이에서 벽구쪽으로 구가 연결되는 현상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참고된다(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반면 최근 전남 나주 운곡동유적에서 방형주거지 내부의 벽구시설과 배수로 상부에 토기편을 이용하여 복개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축조방식에서는 외도동식주거지의 토적시설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정성목 2006, 201~203쪽).

차단하는 경계석축의 축조는 지배층의 권위와 함께 취락구성원의 노동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헤게모니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²⁹⁾.

송국리형주거지의 소멸단계에는 외도동유적과 같이 전시기에 비해 공간경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계획된 취락이 출현하게 된다. 따라서 경계석축을 축조하여 영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에 주거, 생산, 제의, 저장을 위한 시설을 각각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정 지배계층에 의한 취락조성과 함께 생산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계획된 취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상위계층의 출현은 이전 단계의 계층간 분화를 더욱 고조시키고 동시에 상위계층의 급격한 성장은 지역 정치체의 확립을 가속화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시기 지배층의 권위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유력개인묘역에 철기를 다량 매납하는 용담동 철기부장묘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김경주 2005, 200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멸단계에는 외도동식주거지의 축조와 더불어 노동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최고조로 발달된 판석조의 위석식 지석묘가 축조된다. 또한 급성장한 상위계층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철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외래계 선진문물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재분배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소멸단계에는 대부분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데 일부 마한계토기가 동반 출토되며 말기에는 괄지리식토기의 조형으로 추정되는 토기도 출토된다. 특히 연질의 원저단경호는 전남지역의 편년을 참고하면 대략 3세기 중반~4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한옥민 2000, 18~20쪽; 윤효남 2003, 22쪽).

VI. 맺음말

본고에서 제주도 송국리문화는 금강유역에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화양상이 최초로 유입되는 시점에는 주거유형 보다는 토기와 석기 등 선택적인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전반적인 수용과 확산 시기는 대략 기원전 4~3세기경에 해당한다.

송국리문화가 수용·전개되는 과정은 대략 3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1단계(수용)에는 A형의 주거지가 주로 축조되고 있으며 지석묘를 비롯한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조영된다. 토기는 재지계의 직립(내만)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되며 외래계의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 등

31) 송만영은 환호시설의 축조는 주변 취락민들이 일시에 동원되었지만 보수·유지는 제의권을 관장하고 있는 거점취락에서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송만영 2006, 22쪽).

이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는 편인석부가 급증하고 일단병식석검과 삼각형편평석촉 등이 출토되고 있다.

2단계(전개)에는 이전 단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 주거형태는 A형이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B형과 C형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토기는 직립(내만)구연토기와 함께 점토대토기가 소멸하며 반면 삼양동식토기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고배형토기와 이형토제품 등 의례와 관련된 유물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석기는 식량처리구 외에는 대부분 소멸하고 철기로 전환되고 있다.

3단계(소멸)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주거지로 전환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는 이전 단계의 기종이 대부분 소멸하고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고 있으며 일부 마한계 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는 제주지역에 선택적으로 유입된 후 전반적인 수용과 전개과정을 거쳐 소멸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초기 유입단계에 해당하는 주거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멸기에 해당하는 외도동식주거지에 대한 자료 역시 부족한 편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개별 취락의 구조 및 공간분석, 사회조직, 취락간 상호체계 분석, 계층화에 대한 분석, 대내외 지역집단과의 교류체계에 대한 분석 등 많은 점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주제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 및 단행본〉

- 金宗瑞·鄭繼趾·李先齊, 1454, 「世家」46권, 『고려사(高麗史)』.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的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고재원, 2009, 「제주도 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 문화론』, 동삼동 패총 전시관.
- 고재원, 2009,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도록.
- 김경주, 2001,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5號.
-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的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22號.
-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 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도록.
-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青銅器時代의 住居址 研究」,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奎正, 2004,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檢討-圓形粘土帶土器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 第4號.
- 김규정, 2006, 「湖西·湖南地域의 松菊里型 住居址」,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규정, 2007, 「청동기시대 중기설정과 문제」, 『한국청동기학보』1호.
- 金漢相, 2002, 「松菊里文化의 發生과 展開-中西部 海岸地域과 南部 內陸地域의 比較檢討-」,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김승옥, 2006a,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금강 :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승옥, 2006b,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집.
- 김오진, 2009,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51,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6, 「충청지역의 선송국리 물질문화와 송국리 유형」, 『한국상고사학보』51집.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67.
- 金漢植, 2001, 「우리나라 南部地域의 松菊里型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나건주, 2009,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 경기·충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8-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盧美善, 1998, 「錦江流域 粘土帶土器의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盧赫眞, 2001, 「粘土帶土器文化의 社會性格에 對한 一考察-住居遺蹟의 特色을 中心으로-」,

- 『한국고고학보』45집.
- 노혁진, 2009, 「남한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점토대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 朴美賢, 2008, 「有柄式 磨製石劍의 展開와 地域性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과정」, 『금강고고』창간호, 충청문화재연구회.
- 박원배, 2006, 「제주도 용천수의 이용과 보존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제10호, 제주발전연구회.
- 박진일, 2007a,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靑銅器時代 曆年代考」,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 박진일, 2007b,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방문배, 2004, 「제주지역 출토 점토대토기에 대하여 -유입과정 및 시기를 중심으로-」 『濟州文化財研究』제2호,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배덕환,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
- 裴眞晟, 2001, 「柱狀片刃石斧의 變化와 劃期-有溝石斧의 發生과 無文土器時代 中期 社會의 性格-」, 『韓國考古學報』44집, 한국고고학회.
- 서길덕, 2006,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5집, 한국고고학회.
- 孫俊鎬, 2006,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孫俊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靑銅器學報』第三號.
- 宋滿榮,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송만영, 2006, 「湖南地方 靑銅器時代 研究現況과 松菊里類型 形成의 諸 問題」, 『崇實史學』19.
- 송만영,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
- 宋宗烈, 2008, 「錦江流域 圓形粘土帶土器文化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신상호, 2007, 『한국 서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 안재호, 2001, 「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 『港都釜山』第17號,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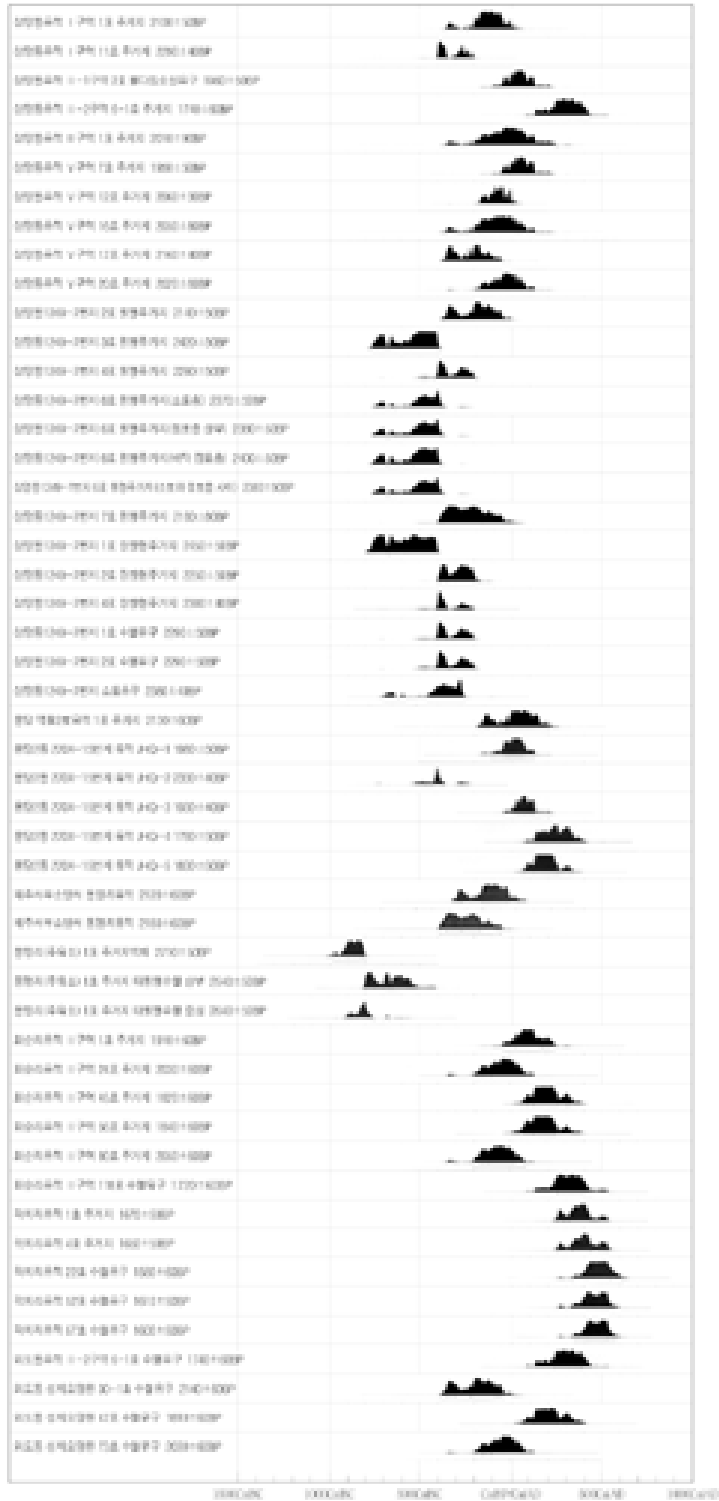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34, 韓國考古學會.
- 安在皓, 2006a, 「日本 彌生初期 農耕聚落의 展開」, 『영남고고학보』39호.
- 安在皓, 2006b,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安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오연숙, 2004,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 우정연, 2002, 「중서부지역 송국리복합체연구」, 『한국고고학보』47.
- 劉香美, 2006, 「淸江流域 松菊里型住居址의 樣相」, 『研究論文集』第6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尹明喆, 2002,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東國史學』第37輯.
- 윤효남, 2003, 「전남지방의 3~4세기 분구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東熙, 2002,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期の 墓制와 地域性」, 『古文化』第60輯.
- 李成載, 2007, 「중국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顯任, 2003, 「江原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翰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숙임, 2007, 「강원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고찰」 『고문화』69집.
- 이영덕, 2004,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신석기토기의 접촉과 전개양상」,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 李宗哲, 2000, 「南韓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종철, 2008, 「탐진강유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발표요지.
- 李眞旻, 2004, 「중부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韓國考古學報』54, 韓國考古學會.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 이청규, 2000, 「요녕 본계현 상보촌 출토 동검과 토기에 대하여」, 『考古歷史學誌』16.
- 이해수, 2009,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에 대한 고찰」, 『東亞文化』第6號.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第12輯.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이홍중, 1992, 「송국리식 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선사와 고대』4, 한국고대사학회.
- 李弘鍾, 1996, 『청동기시대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이홍중, 2000, 「무문토기가 彌生토기 성립에 끼친 영향」, 『청동기문화의 새로운 연구』, 한국고대학회 2000년 춘계 학술회의 발표요지, 한국고대학회.

- 李弘鍾,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 이홍중, 2006a, 「송국리문화의 전개과정과 실년대」, 『금강 :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홍중, 2006b,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60집.
- 이홍중, 2007, 「한·일교섭으로 본 야요이사회의 전개과정」,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 李和種, 2004, 「中部地方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회중, 2006, 「강원지역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특징과 편년」, 『강원고고학보』제7·8합집.
- 庄田 愼矢, 2006, 「송국리문화 접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차 세미나 자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庄田 愼矢, 2007, 「南韓 靑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목, 2006, 「나주 운곡동유적」,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제주도, 1990, 『제주도의 물, 용천수』.
- 趙現鐘, 2008, 「韓國 初期 稻作文化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中村大介, 2008,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한국고고학보』68집.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
- 한옥민, 2000, 『전남지방 토광묘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보』제20호, 호서고고학회.
- 度辺 誠, 1982, 「採集對象植物의 地域性」, 『季刊 考古學』, 創刊號 雄山閣.
- 石野博信, 1995, 『古代住居のはなし』, 吉川弘文館.
- 片岡宏二, 1999,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出版.
- 平井 勝, 1992, 『彌生時代の石器』.
- 後藤 直, 2006, 『朝鮮半島 初期農耕社會の 研究』, 同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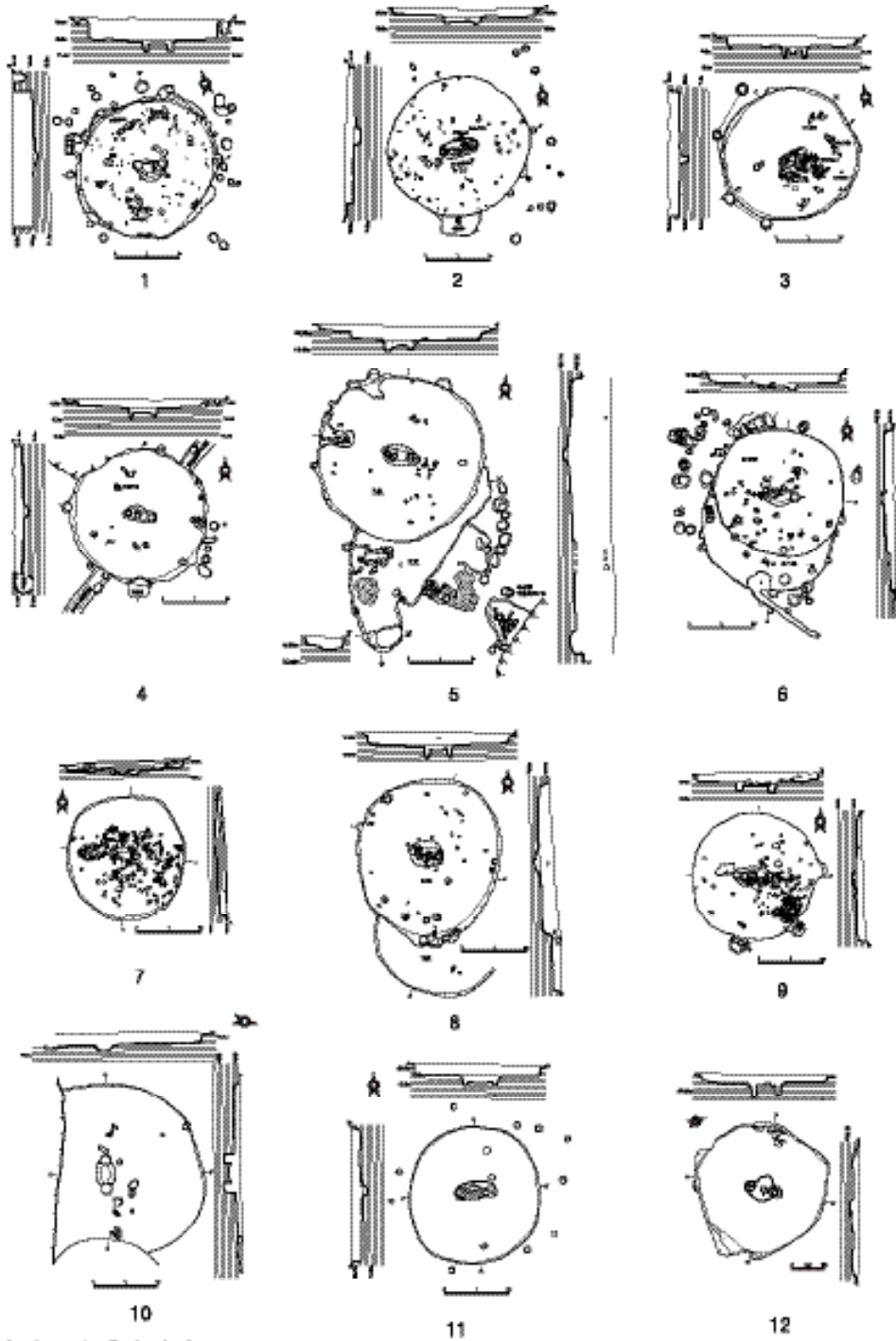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7a,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7b, 『제주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내 동명리유적 긴급수습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7c,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유적(가-I 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마한문화연구원, 2009a, 『용담2동 2704-15번지 단독주택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마한문화연구원, 2009b,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 신대곤 외, 2006, 『제주중달리유적 I』, 국립제주박물관.
-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
-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제주도유적』.
- 제주대학교박물관, 1989, 『용담동고분』.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상모리유적』.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제주 삼양동유적- II · III지구』.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 삼양동유적- I · V지구』.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귀내기동굴 유적』.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7, 『제주 동명리유적 II』.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 『김녕리패총 수습조사 간략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용담동 용문로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외도동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제주관덕정』.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a, 『성산~표선간 국도 12호선 확포장 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용담동 먹돌로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제주 하모리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d, 『제주 동명리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 외도동유적 II』.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 화순리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 『제주시 삼양2동 1249-7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부지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a, 『제주 도련동용관묘』.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b,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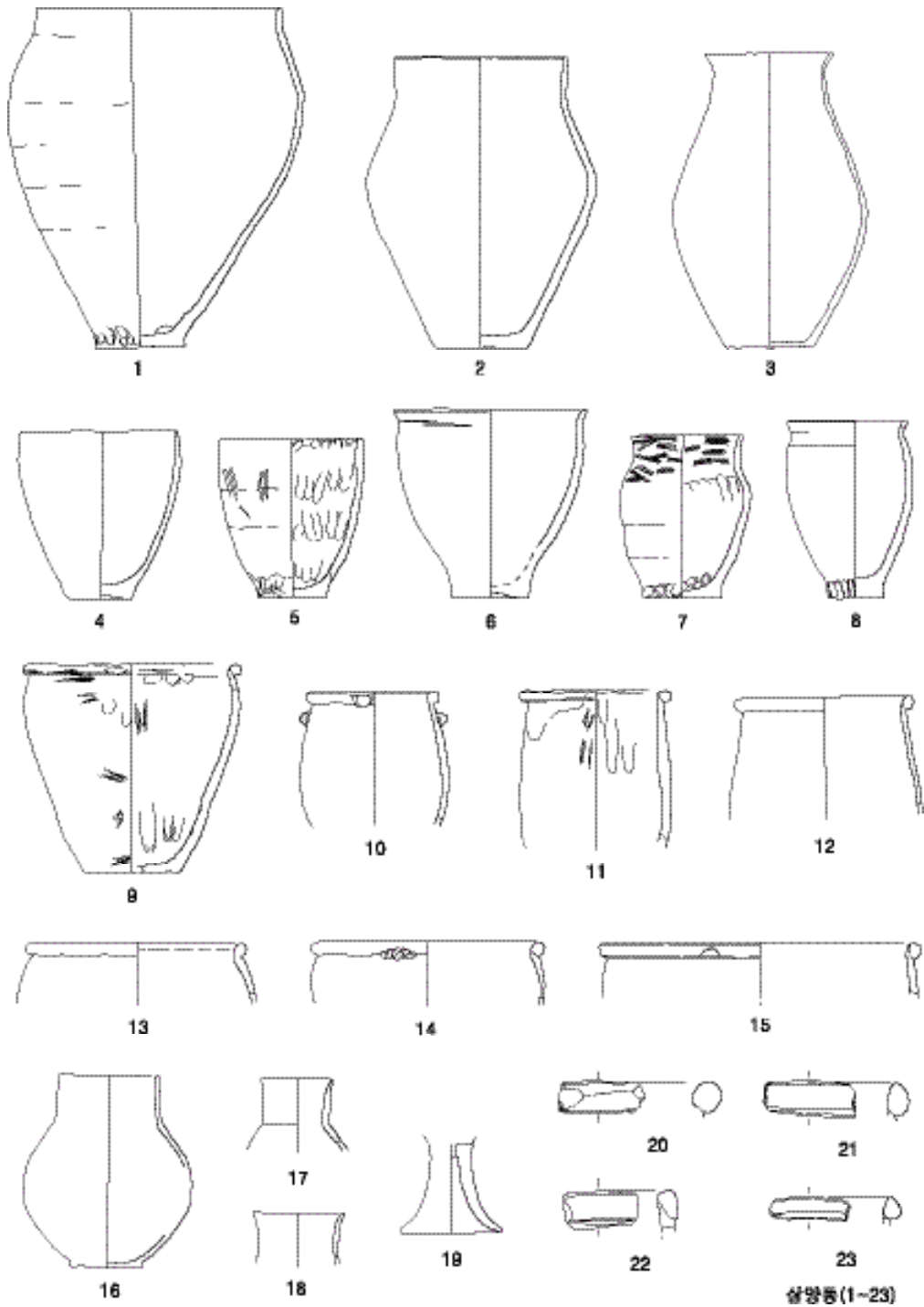


〈도면 11〉 제주지역 송국리형 주거지 AMS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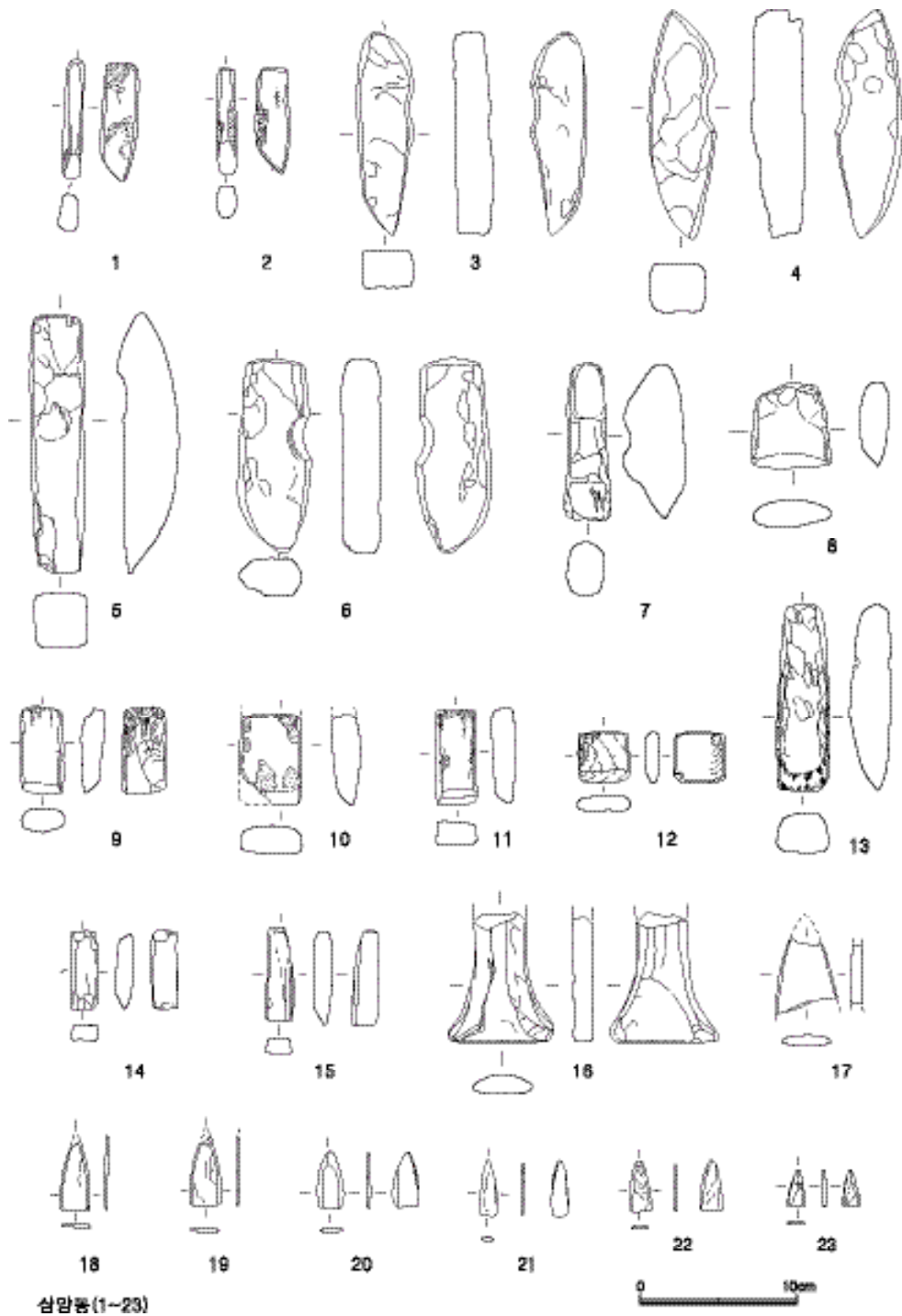


삼양동(1~11), 용담동(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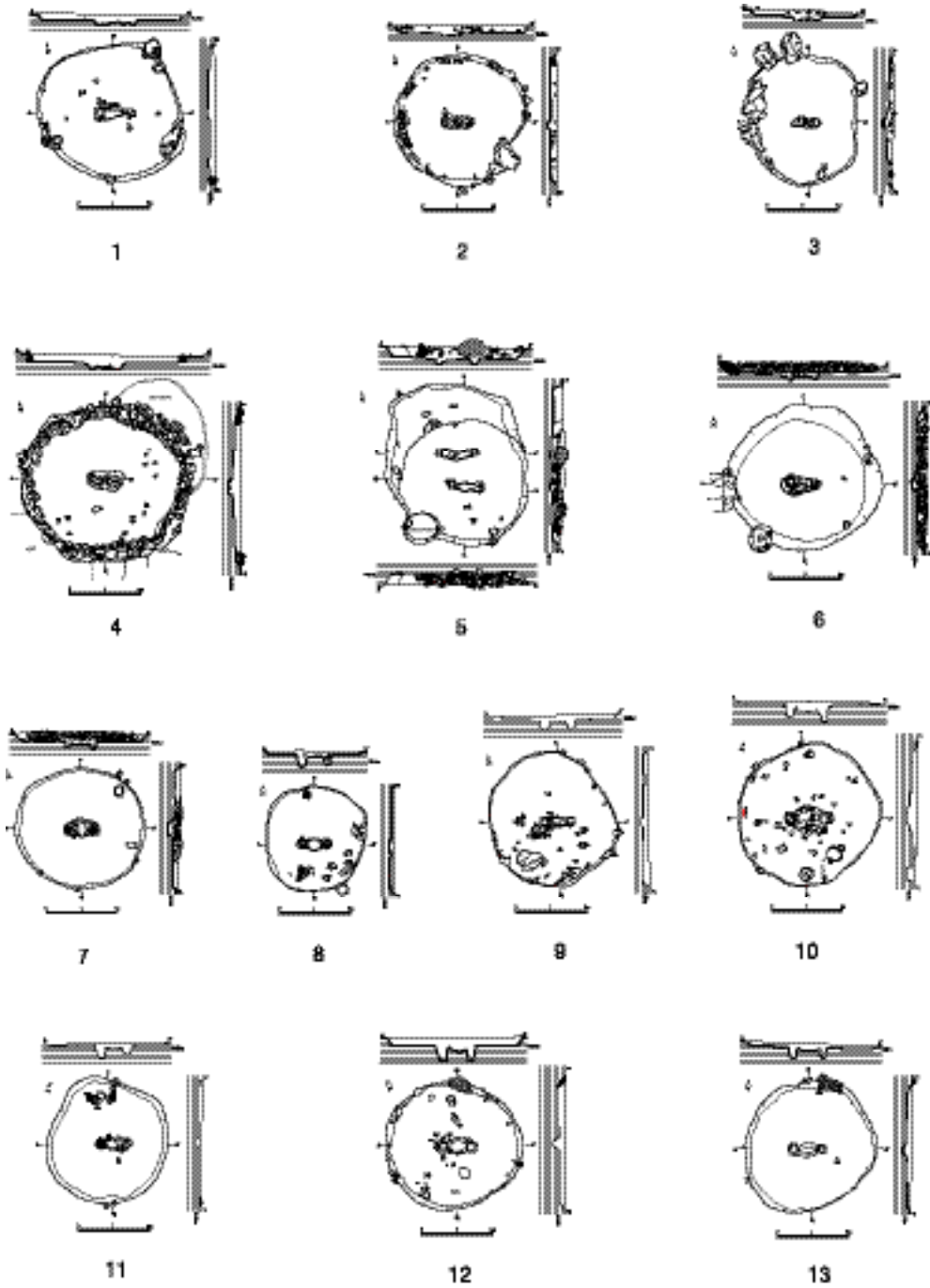
〈도면 12〉 송국리형 주거지 1단계(수용, 축척 1/200)



<도면 13> 1단계 출토유물(축척 1/10[1~3], 1/8[4~8], 1/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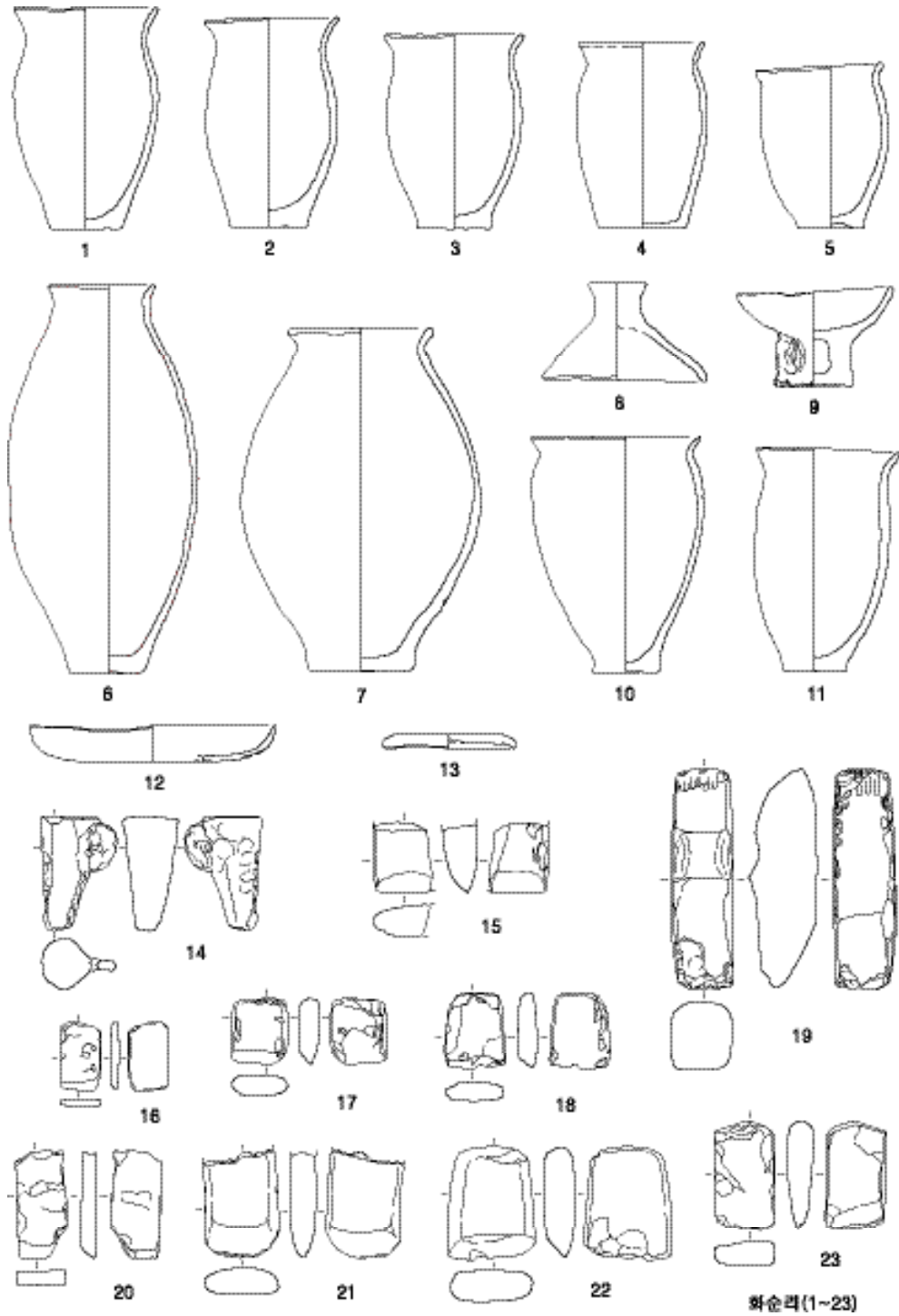


<도면 14> 1단계 출토유물(축척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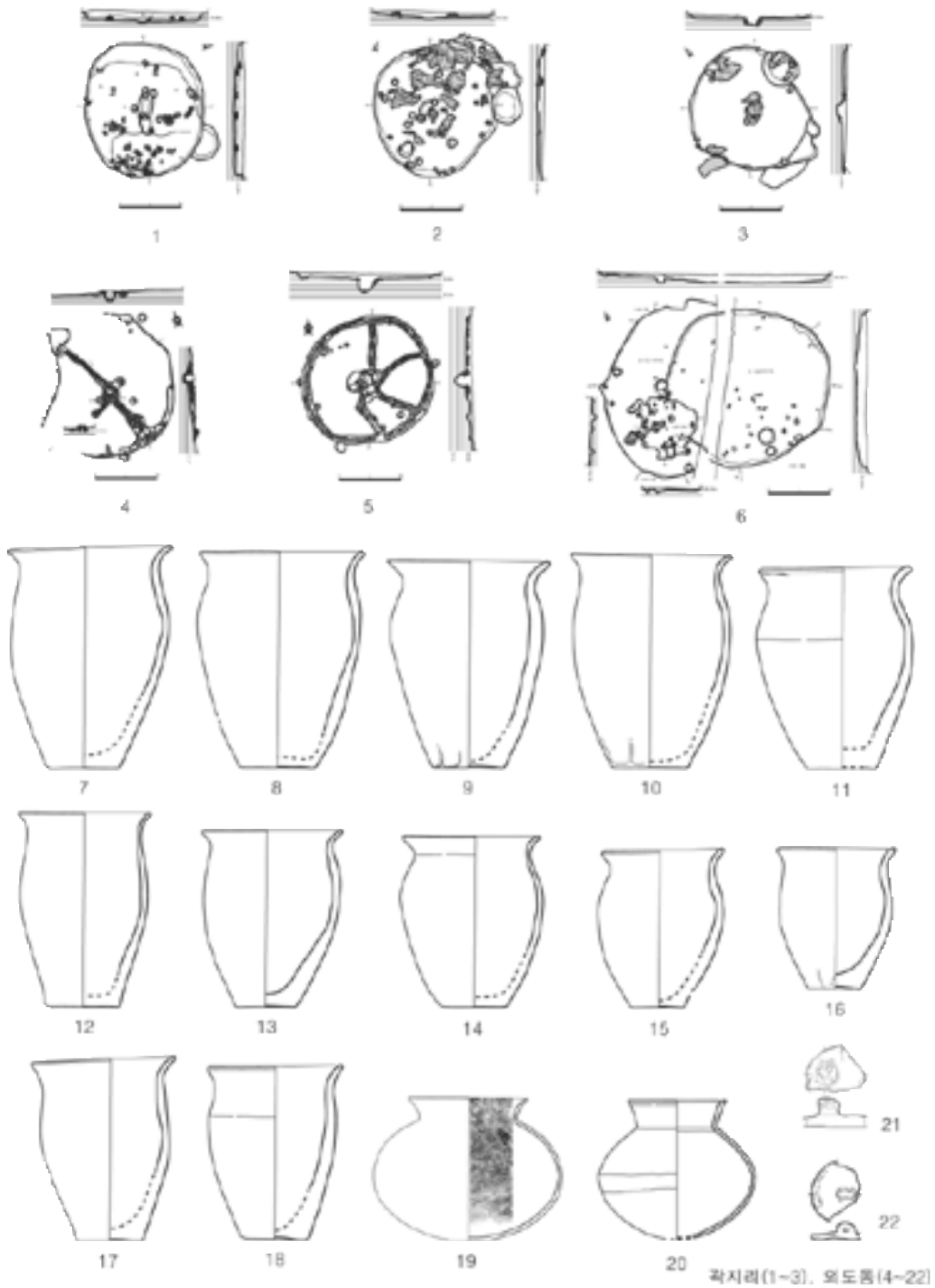


화순리(1~13)

<도면 15> 송국리형 주거지 2단계(전개, 축척 1/200)



<도면 16> 2단계 출토유물(축척 1/8[1~14], 1/4[15~23])



좌지리(1~3), 외도동(4~22)

<도면 17> 송국리형 주거지 3단계(소멸, 축척 1/200)와 출토유물(축척 1/10)